


국정과제 전북가야 홍보책자

평안강대 전라북도 전북가야

加耶

2019

 전라북도

전북 동부지역에서 학계에 보고된
모든 가야제 유적과 유물을
하나로 합쳐
전북가야라고 이름을 지었다.
가야의 지배층 무덤으로 알려진
말무덤 및 가야 고총 400여 기와
햇불과 연기로 신호를 주고받던
100여 개소의 봉수로 상징된다.
전북가야의 용어에는
가야사 국정과제에 국민들을
초대하기 위한 대중적이고
홍보적인 의미만을 담고 있다.



봉수왕국 전북가야



Contents





- 04 봉수왕국 전북가야를 선언하다
- 08 백두대간 속 전북가야 첨단과학
- 12 운봉고원 가야 왕국 기문국[己汶國]
- 16 장수가야 문헌 속 반파국[伴波(叛波)]
- 20 전북가야 첨단산업단지, 진안군
- 24 전북가야와 신라의 각축장, 무주군
- 28 전북가야와 백제의 국경, 완주군
- 32 전북가야 교통망의 허브, 임실군
- 36 전북가야 서쪽 경계, 순창군
- 40 전북가야 삼국시대 봉수왕국이다
- 44 전북가야 봉수로를 복원하다
- 48 전북가야 복원을 위한 큰 도전

- 52 전북 동철서염[東鐵西鹽] 큰 무대
- 56 2200년 전 한반도 테크노밸리, 전북혁신도시
- 60 지리산 달궁계곡 제철유적이다
- 64 운봉고원, 철의 생산과 유통 메카
- 68 전북가야 보물, 금은상감 환두대도
- 70 전북가야의 보물 금동신발
- 72 장수가야, 지붕 없는 철 박물관
- 76 전북가야 보물, 말발굽[馬蹄]
- 79 전북가야, 사통팔달 교역망 구축
- 82 전북가야, 토기박물관을 만들다
- 86 전북가야, 동북아 문물교류 허브
- 88 전북가야, 백제에 복속되다

봉수왕국 전북가야를 선언하다

가야사 조사·연구 및 복원 100대 국정과제 초대 전라북도 등 7개 시·군 봉수왕국 전북가야 선언

2017년 6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정리하고 있는 지방정책 국정과제에 가야사 연구와 복원을 꼭 좀 포함시켜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느닷없는 연구 복원 지시로 가야사가 100대 국정과제 중 67번째로 초대됐다. 가야사를 올곧게 복원하여 영호남의 화해와 화합을 이루겠다는 국민들의 열망이 담겨있다.

2017년 11월 25일에는 전라북도와 남원시·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순창군이 백두대간 치재 부근에 전북가야 기념탑을 세우고 만 천하에 전북가야를 선포했

다. 이날 선포식은 경과보고, 제천례, 전북가야 선포, 전북가야탑 제막식, 봉수의식 순으로 치러졌다. 송하진 전라북도 지사, 7개 시군 시장·군수, 군산대학교 나의균 총장,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선포식을 빛내 줬다. 전북가야를 세상에 알린 첫 자리였다.

당일 전라북도에서는 “전북 남원시, 장수군을 중심으로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임실군·순창군, 충남 금산군 일대에서 발견된 모든 가야계 유적과 유물을 하나로 묶어 전북가야라고 명명하였음을 선포한다”라고 전북가야 선언문을 발표했다. 전북가야는 가야사 국정과제에 국민들을 초대하기 위한



삼국유사 육가야 및 전북의 가야 위치도



전북가야 선포식 고유제 광경

홍보적인 의미만을 담고 있으며, 모든 학술적인 의미가 배제되어 있음을 밝혀둔다. 가야사 국정과제의 성공을 위한 전북도민들의 열망이 담겨있다.

1963년 전북에서 충남으로 편입된 금산군이 선포식에 초대된 것은 전북가야와 생활권 및 문화권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이다. 금산군 일원에 남긴 가야문화유산을 찾고 알리고 연구하기 위한 학계의 관심과 행정당국의 지원을 기원해 본다. 우리나라에서 삼국시대 봉수가 전북가야의 영역에서만 유일하게 발견되어 전북가야 앞에 봉수왕국이라는 수식어를 붙였다. 1500년 전 정보통신기술, 즉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 삼국시대 봉수이다.

전북가야 기념탑 앞면의 '봉수왕국전북가야' 글씨는 취석 송하진이 직접 썼다. 기념탑 뒷면에는 "1500년 전 백두대간 속 전북 동부지역에 기반을 두고 가야 왕국으로까지 발전했던 가야세력을 하나로 묶어 전북가야라고 명명하였다. 전북가야는 가야의 지배자 무덤으로 알려진 가야 중대형 고총 420여 기,

철광석을 녹여 철을 생산하던 제철 유적 200여 개소, 햇불과 연기로 신호를 주고받던 90여 개소의 봉수로 상징된다. 삼국시대 때 전북가야의 위상과 그 역동성을 세상에 알리고 후손들에게 전북가야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영·호남 사람들이 오갔던 화합의 무대인 백두대간 치재에 전북가야 기념탑을 건립하였다"라고 비문을 새겼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기념사에서 "백두대간 치재는 전북 동부지역 가야 문화의 중심지 남원·장수가야가 맞닿는 경계지역이고, 삼국시대 때 백제와 전북가야, 백제와 신라 국경을 형성했던 곳으로





영호남 화합의 큰 무대 백두대간 치재



호·영남 화합의 장소로서도 큰 의미가 있다”며 “상징적인 이곳에 봉수왕국 전북가야 기념탑을 세우고 전북가야가 지녔던 위상과 역동성을 널리 알리고자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봉수왕국 전북가야 선포식을 계기로 전북가야를 집중적으로 발굴·복원하고 세계유산에 등재하여 전북가야를 전북자존의 시대를 여는 큰 축으로 삼겠다”고 밝히면서 전북가야의 봉수와 제철유적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바탕으로 전북가야의 가치를 높이고 전북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도민의 성원과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2017년 12월 8일에는 호남고고학회 주관으로 ‘전북가야를 선언하다’라는 주제로 국제학술심포지엄이 개최됐다. 학술심포지엄에서는 국민대 김재홍 교수가 ‘위세품으로 본 전북가야의 위상과 그 성격’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중국 영파박물관 이군 관장이 ‘중국 남북조와 전북가야의 교류’를 전주문화유산연구원 전상학이 ‘전북지역 가야 고분의 현황과 특징’을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유영춘이 ‘전북가야 철기문화의 독자성’과 조명일이 ‘전북가야의 봉수 운영과 그 역사성’을 발표한 뒤 열린 종합토론을 펼쳤다.

학술심포지엄에 앞서 전라북도과 호남고고학회, 도내 문화유산 조사 및 연구기관 10개 기관은 향후 전북가야에 도민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발하고자 ‘전북가야 조사·연구 및 전시를 위한 업무 협약식(MOU)’을 체결했다. 더 나아가 전북가야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조사·연구 및 전시활동을 통해 국정 과제에 대한 공동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큰 목적을 두었다.

당일 전라북도 송하진 지사 주관으로 거행된 협약식에는 국립전주박물관과 전라문화유산연구원, 전북문화재연구원, 전주문화유산연구원, 조선문화재연구원, 호남문화재연구원,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전북대학교 박물관, 전주대학교 박물관이 참여했다. 앞으로 가야사 국정과제의 성공과 전북가야사가 올곧게 복원되는 그날까지 전북가야에 큰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



봉수왕국전북가야 기념비를 찾은 남원시 공무원 현장답사

백두대간 속 전북가야 첨단과학

삼국시대 봉수 100여 개소 학계 보고, 봉수로 복원 전북가야 영역에서 250여 개소 제철유적 집중 분포

우리나라 전통지리학의 지침서가 '산경표'이다. 조선 영조 때 실학자이자 지리학자인 신경준에 의해 편찬된 전통지리서이다. 우리나라 산줄기의 흐름, 산의 갈래, 산의 위치를 산자분수령(山自分水嶺)의 기본 원리에 바탕을 두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았다. 전북은 산경표의 요람이라 할 수 있는데, 순창군 순창읍 남쪽 남산대가 신경준 고향이다.

한반도의 척추이자 자연생태계의 보고로 알려진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장백정간, 금남정맥, 호남정맥, 금남호남정맥 등 우리나라의 산줄기를 15개로 분류해 놓았다. 1900년대 초 일제에 의해 우리 곁을 강제로 떠났다가 1980년 서울 인사동 고서방에서 산악인 이우형이 조선광문화에서 발간한 영인본을 발견해 그 존재를 세상에 알렸다.

금남정맥과 호남정맥이 전북을 동부의 산악지대와 서부의 평야지대로 갈라놓는다. 백두대간의 영취산에서 주화산까지 서북쪽으로 뻗은 금남호남정맥이 북쪽의 금강과 남쪽의 섬진강유역으로 가르고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동쪽에 운봉고원과 서쪽에 진안고원이 위치한다. 그리고 진안고원은 금강유역에 운봉고원은 남강유역에 속한다.

일제강점기부터 임실 금성리에서 나온 유개장경호와 지명에 근거를 두고 전북 동부지역을 하나의 권역으로만 설정하고 모두 대가야의 변방 혹은 지방으로 비정된 견해가 널리 통용되고 있다. 그러나 전북 동부지역은 하나의 문화권 및 생활권으로 묶기 어려울 정도로 전형적인 산악지대를 이룬다. 동시에 수계상으로도 금강과 섬진강, 남강 등 세 개의 강을 아



장수 침령산성에서 바라본 장계분지 항공사진



금남호남정맥에서 바라 본 섬진강유역

우른다.

삼국시대 때 전북 동부지역을 무대로 치열하게 펼쳐진 백제와 가야, 신라의 역학관계는 대체로 철산지 및 교역망의 장악과 관련이 깊다. 그리하여 백두대간 속 운봉고원과 진안고원에서는 백제와 가야, 신라의 유적과 유물이 함께 존재한다. 그리고 진안 용담댐 내 진안 토성과 용담면 황산리 고분군에서 고구려 토기가 출토되어, 사국(四國)의 토기가 모두 나왔다.

전북 동부지역은 마한 이래로 줄곧 백제문화권에 속했던 곳으로만 인식됐다. 1972년 임실 금성리에서 우연히 가야토기가 발견되어 전북가야의 존재를 처음 세상에 알렸다. 임실 금성리에서 나온 가야 유물을 학계에 소개한 주인공이 전북고고학의 초석을 다진 전영래 교수였다. 1982년에는 남원 월산리 구제발굴에서 운봉고원에 가야문화유산이 존재한다는 고고학적 토대도 마련해 주었다.



1990년대 이르러서는 진안고원을 대상으로 가야문화유산을 찾고 알리는 지표조사와 그 성격을 밝히기 위한 발굴조사도 간헐적으로 추진됐다. 2017년에는 가야사 조사 연구 및 정비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됨으로써 전북가야 문화유산의 분포 양상과 그 실체를 밝히기 위한 정밀 지표조사도 한창 진행 중이다. 동시에 전북 도민들의 전북가야에 큰 관심과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다.

일제강점기 때 지명을 중심으로 시작된 가야사 연구는 1990년대부터 고고학 자료를 지명에 접목시키는 방법으로 바뀌었다. 그 결과 전북 동부지역을 대가야 지방 혹은 대가야 변방에 속했던 곳으로만 인식하고 가야 왕국 기문국(己汶國)이 임실, 남원 등 섬진강유역으로 비정된 견해가 통설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금도 역사학계의 큰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섬진강유역에서는 가야 왕국의 존재를 고고학적으로 방증해 주는 가야 중대형 고총의 존재가 여전히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일제강점기 일본인 학자의 학설이 처음 발표된 뒤 100년 동안 유적을 찾고 알리는 정밀 지표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기의 가야 고총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야문화와 백제문화가 공존하는 점이지대이자 완충지대를 이룬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에 4세기 말엽 늦은 시기 운봉고원과 진안고원의 장수군 일대에서 가야세력이 처음 등장해 계기적인 발전과정을 거쳐 이윽고 운봉고원의 기문국과 장수가야로 발전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강 최상류에서 가야 왕국으로까지 발전했던 장수가야와 관련된 고고학 자료가 가야사 연구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아 추가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삼국시대 최고의 위세품으로 평가받고 있는 금동신발과 철제초두, 편자, 수대경, 계수호가 전북가야에서만 출토됨으로써 그 당위성을 높였다. 여기에 중국, 일본



백두대간 정령치에서 바라 본 운봉고원 항공사진

계 유물도 상당수 포함되어 전북가야가 동북아 문물교류의 허브였음이 증명됐다. 게다가 장수가야의 하위계층 무덤에서는 동남아에서 만든 5색의 채색구슬이 출토되어 커다란 관심을 끌었다.

최근에는 전북 동부지역에서 철광석을 녹여 철을 생산하던 250여 개소의 제철유적과 100여 개소의 봉수가 그 존재를 드러내면서 학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남부지방의 중앙에 위치한 전북 동부지역은 지정학적인 이점을 살려 선사시대부터 줄곧 교통의 중심지이자 전략상 요충지를 이뤘다. 아마도 초기철기시대부터 철의 생산과 유통이 그려낸 역사 이야기가 아닌가 싶다.

전북가야의 문화유산 중 최고의 백미는 봉수이다. 우리나라에서 삼국시대의 봉수가 학계에 보고된 곳은 전북가야가 유일하다. 봉수는 변방의 위급한 상황을 중앙에 알리던 통신제도로 1500년 전 전북가야의 ICT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전북

동부지역에 100여 개소의 봉수가 집중적으로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러 갈래 봉수로의 복원도 거의 마무리됐다.

현재까지 전북가야의 영역에서 그 존재를 드러낸 제철유적은 250여 개소에 달한다. 우리나라에서 제철유적의 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이 전북 동부지역이다. 주지하다시피 제철유적은 원료인 철광석과 연료인 숯, 여기에 1500°까지 온도를 올리는 첨단기술이 더해져야 가능하다. 아직은 제철유적을 대상으로 발굴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전북가야와의 관련성을 밝히는 것이 과제로 남아있다.

인류의 역사 발전에서 공헌도가 가장 높은 것이 철이다. 초기 철기시대부터 전북 동부지역을 무대로 철의 생산과 유통이 왕성하게 펼쳐짐으로써 줄곧 교역망의 허브이자 거점지역을 이뤘다. 1500년 전 전북가야가 봉수를 운영할 수 있었던 국력의 원천도 대규모 철산개발에서 기인한다. 백두대간 속 전북가야는 한마디로 철과 봉수로 상징되는 첨단과학이라고 할 수 있다.



운봉가야, 금동신발 등 최고의 위세품 박물관 토기류 다양, 철기류 현지 제작, 중국제 유물

흔히 신선의 땅으로 널리 회자되고 있는 곳이 백두대간 속 운봉고원이다. 조선시대 예언서 ‘정감록’에 사람들이 살기 좋은 십승지에도 그 이름을 올렸다. 지리산의 절경이 만든 신선의 땅으로 백성들이 천난·외난·인난을 피할 수 있는 최고의 보신처이다. 한마디로 지상낙원이다. 백두대간이 서쪽 자연경계를 이루고 해발 500m 내외의 고원지대로 남강, 섬진강이 운봉고원을 풍요롭게 적셔준다. 행정 구역상 남원시 운봉읍·인월면·아영면·산내면이 운봉고원을 형성한다.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은 ‘다산시문집’에서 “남도의 관방은 운봉이 으뜸이고 추풍령이 다음이다. 운봉을 잃으면 적이 호남을 차지할 것이고 추풍령을 잃으면 적이 호서를 차지할 것이며, 호남과 호서를 다 잃으면 경기가 쭉그러들 것이니,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할 관문인 것이다”라고 했다. 다산의 고견처럼 운봉고원은 영호남 최고의 요해처이자 관방의 으뜸이었다. 동시에 전북가야와 백제, 신라의 유적과 유물이 공존하는 삼국의 각축장으로 영호남의 소통과 화합을 유물로 담아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32호분 복원 이후 모습과 백두대간 산줄기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과 지리산 일원 전경

낸 곳이다.

요즘 역사학계의 이목이 온통 철산지 운봉고원으로 쏠렸다. 2010년 백두대간 동쪽 운봉고원 내 남원 월산리 M5호분에서



중국제 청자인 계수호(鷄首壺)가 그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백제왕의 주요 하사품으로 알려진 최상급 위세품(威勢品)의 하나로 종전에 공주 수촌리, 천안 용정리, 서산 부장리 등 백제의 영역에서만 나왔는데, 가야에서는 처음으로 출토됐다. 중국제 청자가 나온 곳은 대부분 지방의 중심이자 지배자 무덤으로 밝혀졌으며, 중국에서도 최고의 지배자 무덤에서만 출토됐다.

신라의 천마총과 황남대총 출토품과 흡사한 철제초두(鐵製鋤斗)를 비롯하여 금제 귀걸이, 갑옷과 투구, 경갑, 기꽃이 등 가야 위신재(威身財)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13년 남원 유곡리·두락리 32호분에서는 공주 무령왕릉 출토품과 흡사한 수대경(獸帶鏡)과 금동신발이 더 나왔다. 금동신발을 비롯하여 수대경, 철제초두, 계수호는 가야의 영역에서 한 점씩만 출토된 전북가야 최고의 위세품들이다. 바꾸어 말하면 삼국시대 백제와 신라, 가야 소국들이 최고의 위세품과 위신재를 운봉고원으로 보냈던 것이다.

고령 지산동과 합천 옥전에서 나온 금동관을 제외한 가야 최고의 위세품이 대부분 운봉고원에서 출토됐다. 가야 고충에서 최초로 계수호와 철제초두가 남원 월산리에서 금동신발과 청동거울이 남원 유곡리·두락리 32호분에서 그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운봉고원의 역사성과 함께 그 위상을 최고로 높였다. 아마도 백제가 대규모 철 산지이자 문물교류의 관문으로써 운봉고원을 얼마나 중요시했던가를 살필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당시 백제와 운봉가야가 정략관계였음을 알 수 있다.

운봉고원의 기문국이 그 존재를 세상에 처음 알린 것은 1982년이다. 그해 광주와 대구를 잇는 88고속도로 공사구역에 포함된 가야 고충을 대상으로 구제발굴이 이뤄졌다. 본래 백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내 21호분 전경

제의 대형고분일거라는 고고학자들의 당초 예상과 달리 그 조영주체가 가야로 밝혀지면서 적지 않은 관심을 끌었다. 백두대간 동쪽 운봉고원의 운봉가야를 처음으로 세상에 알린 역사적인 명소이다. 2018년에는 반달모양으로 휘감은 서쪽 산줄기에서 10여 기의 가야 고총이 더 발견되어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주관으로 발굴조사가 진행 중이다.

남원 월산리에서 동쪽으로 1.5km 떨어진 곳에 인월면 유곡리·아영면 두락리가 있는데, 이곳에도 40여 기의 가야 고총이 무리지어 있다. 봉분의 직경이 30m 이상 되는 초대형급 가야 고총도 산자락 정상부에 자리하고 있어, 당시에 철의 왕국 기문국이 강력한 국력을 바탕으로 융성했다는 발전상도 뿔뿔했다. 그리고 40여 기의 가야 고총이 한 곳에 무리지어 있기 때문에 운봉고원의 기문국이 상당 기간 동안 존속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운봉고원에서 그 존재를 드러낸 마한의 말무덤과 가야 고총은 180여 기에 달한다. 마한의 말무덤에서 시작하여 가야 고총으로 가야문화를 꽃피웠다.

가야 왕국 기문국은 세 가지 점에서 강한 지역성을 보였다. 하나는 봉분의 중앙부에 하나의 매장공간만 배치된 단곽식이고, 다른 하나는 봉분의 가장자리에 호석시설을 두르지 않았고, 또 다른 하나는 매장공간이 지상식 혹은 반지하식이라는 점이다. 남원 월산리·유곡리·두락리를 중심으로 한 함양 상백리·백천리, 산청 생초·중촌리, 장수 삼봉리·동촌리 가야 고총은 봉분의 가장자리에 호석시설을 갖추지 않았다. 운봉고원을 중심으로 함양군과 산청군, 장수군 일대에 서로 돈독한 교류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전했던 가야 소국들의 존재를 암시해 준다.

당시 철의 왕국으로 융성했던 운봉고원 내 기문국은 가야에서 유일하게 봉분의 규모와 매장공간이 축소되지 않고 그 이전 단계의 발전 속도를 멈추지 않고 더욱 커졌다. 동시에 가야 고총에서 최초로 그 존재를 드러낸 철제초두를 비롯하여 철기유물이 대부분 나왔는데, 더욱 중요한 것은 대부분 철기류가 운봉고원에서 제작됐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기문국 지배자의 시신을 모신 목관에 사용된 껍쇠는 그 크기가 가장 크다. 가야 고총과 껍쇠의 크기는 국력을 상징한다.

운봉가야의 가야 고총은 매장공간의 내부구조가 수혈식에서 횡구식 또는 횡혈식으로 바뀐다. 남원 유곡리·두락리 2호분은 매장공간이 횡혈식 석실분으로 남쪽 기슭 제일 하단부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내 가야 고총 전경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32호분 발굴현장 설명회 모습

에 자리한다. 봉분의 중앙부에 축조된 석실은 아래쪽이 수직에 가깝고 그 위로 올라가면서 모든 벽석을 같은 비율로 좁혀 1매의 천정석으로 덮어 궁륭상을 이룬다. 연도의 위치를 제외하면 유구의 속성은 대체로 공주 송산리 3호분과 상통한다. 백제의 기술자가 기문국의 가야 고총을 만드는데 직접 파견됐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백두대간 산줄기 동쪽, 즉 가야의 영역에서 백제묘제가 가장 일찍 수용된 곳이 운봉고원이다. 6세기 전반기 이른 시기 백제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되면서 가야 고총의 내부 구조가 횡구식 및 횡혈식으로 바뀐다. 가야 고총의 내부구조가 수혈식에서 횡구식으로 바뀐 것은 기문국이 백제에 정치적으로 복속됐음을 말해준다. 무령왕이 운봉고원의 기문국을 교류의 상대에서 정복의 대상으로 인식을 바꾸었다. 운봉고원의 기문국은 백제의 선진문화와 선진문물이 가야 영역으로 전파되는데 줄곧 큰 대문의 역할을 담당했다.

남원 유곡리·두락리 5호분에서 나온 은제목걸이와 은제구슬, 유리구슬, 탄목구슬에서 무령왕릉 출토품과의 관련성도 입증됐다. 기문국의 가야 고총에서 무령왕릉 출토품과 흡사한 백제계 유물이 상당량 나왔기 때문에 백제 웅진기 이른 시기부터 백제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운봉고원에 강하게 미쳤

음을 상정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운봉고원을 통과하던 백두대간 치재로를 따라 백제가 가야지역으로 본격 진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헌의 내용을 유적과 유물이 반증해 줬다.

운봉고원 일대가 6세기 전반 이른 시기 백제 무령왕 때 백제에 정치적으로 편입됨으로써 철의 왕국 기문국이 521년 이후부터는 더 이상 문헌에 등장하지 않는다. 백제는 운봉고원의 기문국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다가 554년 관산성 전투에서 신라에 패배함에 따라 그 주도권을 일시에 상실한다. 남원 유곡리·두락리 2호분, 아영면 봉대리 2호분에서 나온 신라의 단각고배를 근거로 6세기 중엽 경 운봉고원이 신라의 영향권으로 편입됐음을 말해준다. 운봉읍 북천리 신라고분이 유적과 유물로 신라 영역이었음을 다시 입증했다.

현재까지 운봉고원의 가야 고총에서 토기류와 철기류, 장신구류 등 대부분의 가야 유물이 나왔는데, 차양이 달린 복발형 투구 등 상당수 철기유물이 운봉고원에서 제작됐다. 진안고원의 장수군에서 갈라진 한 갈래의 봉수로가 백두대간을 따라 선상으로 이어져 장수가야와의 우호관계도 유적과 유물로 입증됐다. 기문국과 장수가야는 혈맹이었다. 2018년 호남지방에서 최초로 남원 유곡리·두락리 고분군이 국가 사적 제542호로 지정됐고,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대상 목록에도 선정됐다.

장수가야 문헌 속 반파국[伴跛(叛波)]

장수가야, 백두대간 서쪽 유일한 가야 왕국 가야 중대형 고총 240여 기, 봉수로 종착지

백두대간과 금남정맥, 금남호남정맥 사이에 진안고원이 있다. 달리 호남의 지붕으로 불리는 곳으로 전북 장수군·진안군·무주군과 충남 금산군이 여기에 속한다. 선사시대 이래로 줄곧 지정학적인 이점을 살려 교통의 중심지이자 전략상 요충지를 이뤘다. 삼국시대 때는 백제와 가야, 신라가 철산지이자 구리산지 진안고원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치열하게 각축전을 펼침으로써 삼국의 유적과 유물이 공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안고원이 한국고대사 연구에서 그다지 주목을 못하고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국토를 동서로 갈라놓는 백두대간 산줄기 서쪽에 장수가야가 있다. 금강 발원지 신무산 뜬봉샘이 자리하여 수계상으로는 금강 최상류를 이룬다.

낙동강유역에 속한 운봉고원에 기반을 둔 가야 왕국 기문국

과는 백두대간, 금남호남정맥 산줄기들로 가로막혀 별개의 독립된 지역권을 형성하고 있다. 금관가야, 대야가 등 20여 개의 가야 왕국들이 백두대간 동쪽에 위치하고 있지만, 장수가야의 경우만 유일하게 백두대간 서쪽에 자리해 있다. 백두대간 산줄기 서쪽 금강유역으로까지 가야의 영역을 넓힌 가야왕국이 장수가야이다.

1993년 이른 봄 백두대간 서쪽 진안고원에서 장수가야가 처음으로 그 존재를 세상에 알렸다. 2003년과 2012년에는 문화재청으로부터 두 차례의 긴급 발굴비를 지원받아 장수 삼봉리 가야 고총 발굴조사에서 큰 성과를 거두어 2013년 전라북도 기념물 제128호로 지정됐다. 2016년에는 90여 기의 가야 중대형 고총으로 구성된 장수 동촌리 고분군도 전라북도 기념물 제132호로 지정됐고, 최근 국가 사적으로 승격을 앞두고 있다.



장수 동촌리 고분군 30호분 복원 이후 모습과 가야 답사반



장수 동촌리 고분군 내 28호분 발굴 이전 모습

장수군민의 장수가야 사랑에 경의를 표한다.

2018년 장수가야 하위계층 분묘유적인 장수 삼고리에서 3기의 봉토분이 조사됐는데, 봉토분은 토광묘와 수혈식 석곽묘로 구성된 매장공간의 바닥면 높이가 대부분 달라 추가장에 의한 다곽식으로 밝혀졌다. 유물은 위신재로 알려진 금제이식, 오각형 철제대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양식의 토기류가 나왔다. 가야·백제·신라토기와 영산강유역의 유공광구소호가 섞인 토기류는 그 조합상이 '삼국시대 토기박물관'을 방불케 했다. 우리나라에서 가야와 백제, 신라, 고구려 유물이 함께 나온 곳은 전북 동부지역이 유일하다.

가야 고총이란 봉분의 직경이 20m 내외되는 대형무덤으로 그 주인공이 지배자 혹은 지배층으로 추정된다. 진안고원의 가야 분묘유적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가야 중대형 고총이다. 가야 고총은 대체로 사방에서 한 눈에 보이는 산줄기 정상부에 입지를 두었는데, 운봉고원의 경우처럼 봉분을 산봉우리처럼 훨씬 크게 보이게 함으로써 그 주인공의 권위와 신분을 극대화하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있다. 삼국과 구별되는 가야만의 독자적인 장례풍습이다.

이제까지의 지표조사를 통해 진안고원의 장수군에서 240여기의 가야 고총이 확인됐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장계분지에는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에서 41기·월강리에서 23기·장계리에서 20여 기, 계남면 호덕리에서 40여 기와 화양



장수군 장계분지 항공사진



장수군 장수분지 항공사진

리에서 1기의 가야 고총이 있다. 그리고 장수분지에는 마봉산에서 서북쪽으로 뻗은 산줄기 정상부에 90여 기와 팔공산 서남쪽 대성고원에도 5기 내외의 가야 고총이 있다. 어떻게 보면 장수군의 가야 고총은 장수가야의 역사책이다.

장수 삼봉리에서 40여 기와 장수 동촌리에서 90여 기의 가야 고총이 한곳에 무리를 이루고 있는 것은 장수가야의 존속 기간을 웅변해 준다. 장수분지의 중앙부에 위치한 장수 동촌리에는 90여 기 이상의 가야 고총이 무리지어 가야 영역에서도 상당히 이례적이다. 봉분의 직경이 30m 내외 되는 장수 화양리를 비롯하여 240여 기의 가야 중대형 고총이 무리를 이루고 있어, 당시 철의 왕국으로 융성했던 장수가야의 위상도 유추해 볼 수 있다. 삼국시대 철산지는 대부분 중앙이자 거점지역을 이루었다.

장수가야의 고총은 그 평면형태가 장타원형으로 호석을 두르지 않아 장수가야만의 지역성과 독자성이 입증됐다. 동시에 마한의 분구묘처럼 봉분을 만든 뒤 다시 파내어 매장공간을 마련하여 운봉고원의 기문국과 묘제적인 친연성도 확인됐다. 장수군의 가야 고총이 마한의 말무덤 전통을 그대로 이어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봉분의 중앙부에 주석곽이 배치되어 있고, 그 주변에 1~3기 내외의 순장곽이 배치된 다곽식이다. 가야 고총의 지역성을 통해서도 장수가야의 존재를 세상에 알렸다.

2015년 장수 동촌리 가야 고총에서 말발굽과 말뺨가 함께

나왔다. 주석곽은 구지표와 생토면을 반반하게 고르고 1m 높이로 성토한 다음 다시 파내었는데, 유구의 속성은 마한 분구묘의 묘제와 일맥상통한다. 마한의 분구묘는 봉분의 사방에 도랑을 두른 무덤을 말한다. 가야 고총에서 처음으로 말발굽이 나와 학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말발굽은 주조기술의 백미이자 지금의 반도제와 같은 것이다. 장수가야가 우수한 철의 가공기술을 가진 가야 왕국이었음이 유물로 보여졌다.

주지하다시피 봉수란 낮에는 연기와 밤에는 횃불로써 변방의 급박한 소식을 중앙에 알리던 통신제도이다. 가야의 고총 못지않게 가야 왕국의 존재여부를 방증하는 가장 진솔한 고고학 자료이다. ‘양직공도’, ‘일본서기’에 등장하는 가야 왕국 반파(伴波)가 513년부터 3년 동안 기문, 대사를 두고 백제와 전쟁을 치를 때 봉후(守)제를 운영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삼국시대의 봉수가 존재하고 있을 개연성이 충분히 상정된다. 당시의 봉수가 학계에 보고된 곳이 장수군을 중심으로 한 전북 동부지역이다.

전북 동부지역에서 그 존재를 드러낸 100여 개소의 봉수는 백제와 국경을 마주한 장수가야가 생존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운영했던 통신유적이다. 동시에 장수군 제철유적을 사방에서 감시하듯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 제철유적의 방비를 위해 배치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렇다면 장수가야는 유일한 봉수왕국이자 문헌 속 반파국이다. 전북 동부지역 봉수의 운영 주체가 장수가야라는 역사성을 고증하기 위한 발굴조사가 절



장수 삼봉리 고분군



장수 동촌리 고분군 발굴 광경

실하다. 그렇지만 백두대간 동쪽 영남지방에서는 삼국시대의 봉수가 학계에 보고되지 않고 있다.

진안고원의 장수군에 기반을 둔 장수가야가 어떤 과정을 거쳐 백제에 복속됐는지, 언제부터 백제의 영토에 편입됐는지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장수 삼고리에서 삼족토기·병과 장수 동촌리에서 직구단경호가 나왔는데, 그 시기는 6세기 초엽을 전후한 시기로 편년됐다. 6세기 초엽을 전후하여 백제의 영향력이 장수가야에 강하게 미치기 시작했고 백제토기도 유물로 부장되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6세기 초엽을 전후한 시기까지도 장수가야가 백제에 정치적으로 복속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다가 진안고원을 가로질러 백두대간의 육십령을 통과하는 교통로를 따라 경남 거창과 함천, 경북 고령 등 영남 내륙지역으로 진출할 때 백제에 정치적으로 복속된 것 같다. 지금까지 축적된 고고학 자료를 근거로 장수가야의 존속 기간은 대략 150년 내외로 추정된다. 장수가야의 지역성이 강한 240여 기의 가야 고총과 100여 개소의 봉수가 이를 고고학적으로 뒷받침해 줬다. 삼국시대 봉수와 가야 고총이 함께 존재하는 곳은 장수군이 유일하다. 금강 최상류에 지역적인 기반을 둔 유일무이한 가야왕국이라는 유일성과 봉수왕국이라는

역사성도 꼭 기억했으면 한다.

진안고원의 가야 왕국 장수가야가 백제에 복속된 이후에는 진안고원을 두고 백제와 신라가 치열한 각축전을 펼쳤다. 그리하여 진안고원에서 교통의 중심지이자 전략상 요충지인 충남 금산군과 전북 진안군·무주군에서 백제와 가야, 신라의 유적과 유물이 함께 공존한다. 당시에 대규모 철산지이자 구리산지인 진안고원을 차지하려는 삼국의 국가전략이 담겨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북 동부지역 제철유적의 운영시기와 운영주체를 밝히기 위한 발굴조사가 절실한 대목이다.

마한 이래로 줄곧 백제문화권에 속했던 곳으로만 인식된 장수군의 토착세력집단이 4세기 말엽부터 가야문화를 받아들여 가야 왕국으로까지 발전했다. 장수 남양리에서 처음 시작된 철의 생산과 유통이 장수가야에 이르러서 더욱 역동적으로 이뤄졌다. 장수가야는 대규모 철산개발로 국력을 다진 뒤 백제의 동태를 살피고 제철유적의 방비를 위해 봉후(수)제를 운영했던 것 같다. 장수군을 중심으로 전북 동부지역은 지붕 없는 가야의 야외박물관이다. 향후 전북 동부지역 가야문화유산을 역사교육의 장과 영호남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보존정비 및 활용방안도 조속히 마련됐으면 한다.

전북가야 첨단산업단지, 진안군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진안군 동향면 제동유적 전북가야 국력 원천, 사국 유적 및 유물 공존

일제강점기부터 진안군 문화유적 분포양상이 간헐적으로 알려지다가 진안군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이 완료됨으로써 보다 더 심층적으로 파악됐다. 1990년대 중반에는 진안 용담댐에서 가야계 문화유적의 존재가 처음 학계에 보고됐고, 그 성격을 밝히기 위한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도 상당히 진행됐다. 진안고원 일대에 지역적인 기반을 두고 성장했던 가야세력의 수장층 무덤으로 밝혀진 가야 중대형 고총과 관방유적, 통신 유적, 생산유적 등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강한 지역성을 보였다.

1994년 이른 봄 진안군 용담면 월계리 황산마을을 찾았다. 일단 50여 호 이상 되는 마을의 규모에 크게 놀랐고 어르신들의 친절함에서 큰 감동을 받았다. 이 마을 이장님을 찾아뵙고 방문 목적을 설명하고 곧바로 마을 동쪽 밭으로 향했다. 온통 붉은색을 뽐내는 고운 황토를 보고 황산(黃山)이라는 마을 이

름이 황토에서 유래됐다는 주민들의 말씀에 저절로 머리가 숙여졌다. 밭둑에 쌓아둔 몇 개의 강들을 보고 유적이 자리하고 있을 거라는 작은 바람을 가지고 유적의 존재 가능성을 세상에 알렸다.

1996년 군산대학교 발굴단에 의해 진안 황산리 고분군이 1500년의 긴 잠에서 깨어났다. 본래 삼천서원의 터로 알려진 남쪽 기슭 뽕나무 밭에서 가야 고분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모두 10여 기의 가야 고분은 밭 개간과 경작활동으로 뚜껑돌과 벽석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유적이 심하게 훼손됐지만 무덤에 넣어둔 유물은 그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었다. 종래에 전북 동부지역에서 조사된 가야 고분들과 동일하게 등고선과 평행되게 장축방향을 두어 전북가야가 진안군 일대로 진출했음을 방증했다.

당시 가야 고분에서 나온 유물을 한데 모아 놓고 조사단은



진안 옥거리 봉화산 봉수와 용담댐



진안 황산리 고분군과 금강 전경

모두의 눈을 의심했다. 목 부분에 물결무늬가 선명하게 시문된 가야토기를 중심으로 백제토기, 신라토기가 함께 섞여 있었기 때문이다. 가야토기는 그 시기가 가장 앞서는 것이 5세기 말엽으로 당시 용담댐 일대로 전북가야의 진출을 증명했다. 충남 금산군과 진안군 일대로 가야 진출의 발미를 제공했던 것은 백제였다. 475년 백제는 공주로 도읍을 옮긴 뒤 한 동안 정치적인 불안에 빠지자 당시 최전성기를 보내고 있었던 장수가야가 용담댐 일대로 진출을 단행했던 것이다.

당시 백제와 나제동맹을 맺은 신라도 백제의 국난을 함께 하지 않고 백두대간 덕산재를 넘어 대규모 철산지 무주군 일대를 장악했다. 그만큼 철은 두 나라의 동맹을 무력화시킬 정도로 귀한 존재였다. 진안고원의 장수군에 지역적인 기반을 둔 장수가야는 지하자원의 보고인 완주군 동북부와 금산분지를 장악한 다음 산성 및 봉수를 집중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전북가야의 영역을 최대로 넓혔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진안 황산리 2호분에서 고구려 토기가 가야의 수혈식 석곽묘에서 나와 당시 대전까지 진출한 고구려와의 문물교류도 유물로 나타났다.

진안 용담댐 일대를 처음 장악한 나라는 백제였다. 진안 황산리에서 동쪽으로 200m 가량 떨어진 진안 와정토성이 유적과 유물로 뒷받침해 줬다. 진안 와정(臥停)토성은 누워서 머물다는 지명의 의미처럼 내륙교통의 거점이었다. 진안 용담댐

본댐에서 가장 가까운 와정마을에 백제 와정토성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우연이다. 어릴 때 마을 부근 산에 성이 있었다는 어른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기억하고 그것을 발굴단에 제보했기 때문이다. 모두 두 차례의 발굴조사에서 백제토기가 유물의 절대량을 차지하고 여기에 가야토기, 고구려토기가 함께 섞여있었다.

그러다가 장수가야의 진출로 진안 와정토성이 마침내 문을 닫았다. 당시 발굴조사에서 성벽에서 화재 흔적이 확인됐는데, 당시의 대규모 화재가 토성의 문을 닫는 원인이 됐다. 진안 와정토성을 폐성시킨 장수가야는 진안군 용담면 월계리 성남마을 부근에 산성을 쌓아 이곳을 다시 전략상 요충지로 삼았다. 지금은 진안 용담댐 건설로 나루터가 수몰됐지만 1980년대까지만 해도 나루를 이용해서 금강을 건넜다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2018년 진안 월계리 산성에 역사의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한 진안군의 학술조사에 큰 박수를 보낸다.

1500년 전 가야와 백제, 신라 등 삼국이 진안고원에 국력을 쏟았던 배경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당시 국력의 원천으로 알려진 구리와 철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동광석을 녹여 구리를 생산하던 제동유적이 처음 발견된 곳이 진안군 동향면이다. 본래 구리고을이라는 지명처럼 초기철기시대부

터 조선시대까지 지속적으로 구리를 생산해 진안군의 위상을 최고로 높였다. 여기에 철광석을 녹여 철을 생산하던 30여 개소의 제철유적도 발견됐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널리 쓰인 청동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구리는 녹는 온도가 낮아 일상생활에 널리 이용됐다. 그만큼 철 못지않게 인류의 역사 발전에 공헌도가 높은 것이 구리이다. 따라서 진안군 동향면 대량리 제동유적은 생산유적의 백미이다. 2016년부터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주관으로 이루어진 두 차례의 발굴조사에서 2기의 제련로와 대규모 폐기장, 부속 건물지 등의 유구가 확인됐다. 본래 대량리 지명이 구랭이로 구리를 생산하던 마을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우리나라에서 철광석을 녹여 철을 생산하던 제철유적이 가장 많이 발견된 곳이 진안고원이다. 운장산과 장안산, 덕유산 등 진안고원에서 학계에 보고된 제철유적은 그 수가 170여 개소에 달한다. 진안고원에서 생산된 철이 널리 유통될 때 이를 국가에서 관할하기 위해 백제가 진안 와정토성을, 장수가야가 진안 월계리 산성을 쌓았다. 전북가야와 백제의 역학관계를 한눈에 살필 수 있는 곳이 진안고원이다.

삼국시대 철이 유통되던 옛길이 그물조직처럼 잘 갖춰져 진안고원을 교역망의 허브로 키웠다. 전북 동부지역에서 생산된 철이 널리 유통되던 교역망으로 달리 아이언 네트워크이다. 그리하여 진안군 일대에서 가야와 백제, 신라의 유적과 유물이 함께 존재한다. 여기에 고구려 토기까지 더해져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사국(四國)의 유물이 학계에 보고된 곳이 진안군이다. 삼국시대 때 진안군은 문화의 융광로였다.

진안군의 가야문화유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봉수이다. 1500년 전 ICT로 평가 받고 있는 봉수는 전북가야 문화유산의 백미이다.

진안군 용담면 옥거리 봉화산 봉수를 중심으로 20여 개소의 봉수가 학계에 보고됐다. 삼국시대 봉수들로 전북 완주군, 충남 금산군에서 시작된 두 갈래의 봉수로가 진안군을 가로질러 최종 종착지 장수군 장계분지까지 선상으로 이어진다. 진안군

은 두 갈래의 봉수로가 통과하는 경유지이다.

진안 용담댐 일원이 한눈에 잘 조망되는 망바위 정상부에 봉수가 위치해 있다. 망바위 정상부를 평탄하게 다듬어 봉수 시설이 마련됐는데, 그 평면형태는 원형으로 불에 그을린 몇 매의 할석이 남쪽에 노출되어 있다. 진안 망바위 봉수로 날씨가 쾌청하면 진안고원 일원이 대부분 시야에 들어온다. 한마디로 진안고원의 레이더 기지와 같은 곳이다. 진안 와정토성과 황산리 고분군, 진안 월계리 산성 등이 부근에 위치해 역사적인 의미를 더해 준다.

금남정맥 작은 싸리재 동쪽 성재봉 정상부에 진안 태평 봉수가 있다. 장방형 봉대는 크기가 다른 판석형 할석을 가지고 수직으로 쌓았으며, 봉대의 정상부로 오르는 계단이 남쪽에 마련되어 있다. 2010년대 초 지표조사 때 물결무늬가 시문된 가야토기편 등 삼국시대 토기편이 상당량 수습되어, 봉수의 운영주체가 봉수왕국 장수가야로 밝혀졌다. 1977년 12월 31일 전라북도 기념물 제36호로 지정됐고, 1990년대 진안군에서 지금의 모습으로 정비 복원했다.

섬진강유역에도 한 갈래의 진안봉수로가 진안군을 동서로 가로지른다. 마령면 소재지 서북쪽 산봉우리 정상부에 진안 서비산 봉수가 있다. 다른 봉수들과 달리 자연암반을 평탄하게 다듬어 봉대를 마련했는데, 그 중앙에 불을 피우던 발화구가 장구모양으로 잘 남아있다. 진안 봉우재·봉우재봉 봉수는 지명으로 봉수의 역사성을 높였다. 그렇지만 정천면 봉학리 봉수, 상전면 수동리 봉수는 1970년대 헬기장을 조성하면서 유적이 통째로 사라져 안타깝다. 선사시대부터 지속적으로 교통의 중심지이자 전략상 요충지를 이룬 곳이 진안군이다.

흔히 역사의 실체로까지 평가받는 유적과 유물로 일목요연하게 증명됐다. 진안 용담댐에서 나온 빗살무늬토기는 대륙의 신석기문화를 거의 다 모았다. 청동기시대에 이르러서도 진안군 전 지역에 고인들이 골고루 분포되어 당시 거점지역으로 발전했음을 알 수 있다. 마한은 공백상태로 남아있는데, 진안군에서 제철유적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발굴조사가 거의



진안 황산리 11호분 출토유물



진안 황산리 출토 신라토기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관련이 깊다.

우리나라의 남부지방 심장부에 위치한 지정학적인 이점 못지않게 동광석, 철광석 등 무궁무진한 최고의 광물자원도 커다란 몫을 담당했다. 475년 백제가 웅진으로 도읍을 옮긴 뒤 한 동안 정치적인 불안에 빠지자 이를 틈타 전북가야가 진안군 일대로 진출함으로써 전북가야와 처음 인연을 맺었다. 진안고원 속 진안군은 선사시대부터 줄곧 내륙교통의 허브이자 전북가야의 첨단산업단지였다. 향후 전북가야와 진안군의 상호관계를 밝히기 위해 제철유적과 통신유적을 대상으로 발굴 조사가 추진됐으면 한다.



진안 대량리 제동로 기저부 근경



진안 월계리 산성과 금강 전경

전북가야와 신라의 각축장, 무주군

무주군 철산지, 덕유산 일대 50여 개소의 제철유적 가야와 백제, 신라 삼국의 최대 격전지와 나제통문

무주군은 가야와 백제, 신라의 유적과 유물이 공존한다. 고구려 장수왕의 남하정책으로 한성을 상실하고 공주로 도읍을 옮긴 백제가 갑자기 정치적인 불안에 빠지자 가야 왕국 장수 가야와 신라가 무주군 일대로 진출한다. ‘일본서기’에는 반파와 신라가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보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무주군 제철유적을 차지하기 위한 철의 전쟁으로 추측된다. 당시 무주군 일대 철산지를 차지하기 위해 장수가야와 신라가 갈등관계를 보였다.

신라의 무주군으로 진출은 유적과 유물로 증명됐다. 신라 무산현 행정치소인 무주군 무풍면 일대를 적신 남대천은 나제

통문을 지나 줄곧 동북쪽으로 흘러 무주읍 대차리에서 금강으로 흘러든다. 웅진기 사행로가 금강을 건너던 나루터가 있었던 무주읍 용포리 부근에 무주 대차리 고분군이 위치한다. 본래 나루터가 있었던 용포리는 금산과 무주를 이어주는 37번 국도와 35번 통영대전고속국도가 통과한다.

모두 11기의 수혈식 석곽묘는 바닥에 시상석이 마련된 9기와 시상석이 없는 것으로 나뉘는데, 전자는 유구의 속성이 옥천 금구리, 상주 현신동·병성동에서 조사된 신라고분과 상통한다. 유물은 대부장경호 등 40여 점의 신라토기가 절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시기는 6세기 전후로 비정됐다. 금강을



무주 대차리 고분군 항공사진



덕유산국립공원 내 삼거리 제철유적 슬래그더미

중심으로 그 동쪽에 위치한 무주군 일대로 신라의 서진(西進)을 유물로 증명했다. 무주 대차리 발굴조사를 통해 신라의 무주군으로 진출이 50년 이상 앞당길 수 있게 됐다.

6세기 초엽 경 장수가야가 백제에 복속된 이후 백제와 신라의 국경이 나제통문에서 형성됐다. 일제강점기 석모산 암벽을 뚫어 만든 나제통문은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에 자리한다. 삼국시대 백제와 신라의 국경을 형성했다고 전해지며, 지금도 양쪽의 언어와 풍습이 다르다. 나제통문을 중심으로 서쪽은 백제의 적천현(赤川縣), 동쪽은 신라의 무산현(茂山縣)이었는데, 조선시대에 이르러 양쪽 지역을 합쳐서 무주현(茂朱縣)이라 했다. 백제와 신라의 사신들이 64년 동안 오갔던 웅진기 사행로(使行路)도 나제통문 부근을 통과했다.

2019년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주관으로 덕유산 일대 제철유적을 찾고 알리는 지표조사가 마무리됐다. 덕유산 일대에서 제철유적이 그 존재를 드러냈는데, 지금까지 발견된 제철유적은 그 수가 50여 개소에 달한다. 백두대간 달암재 북쪽 기슭에서 발원하여 줄곧 서북쪽으로 흐르는 월음령계곡과 덕유산 동쪽 구천동계곡에 제철유적이 조밀하게 무리지어 있다. 구천동계곡과 월음령계곡은 진정한 아이언 밸리(Iron Valley)이다.

덕유산 향적봉 동쪽 기슭에서 발원하는 구천동계곡은 백연사 부근에서 그 방향을 북쪽으로 틀어 계속해서 북쪽으로 흐른다. 백연사 위쪽은 달리 재자골로 불리는데, 현지조사 때 재자골과 구천동계곡에서 많은 제철유적이 발견됐다. 구천동계곡에서 비교적 넓은 평탄대지에 제철유적이 입지를 두었는데, 그 주변에는 철광석을 채광하던 채석장이 위치한다. 그리고 당시 제련로를 만드는데 필요한 양질의 흙에 주로 자생하는

산죽도 군락지를 이룬다.

백두대간 달암재 서북쪽 월음령계곡에도 10여 개소의 제철유적이 무리지어 있다. 무주군과 거창군을 이어주던 옛길이 통과하던 달암재의 달(達)자에는 제철유적을 암시하는 뜻이 담겨있다. 달암재 북쪽 기슭에서 시작해 월음령계곡을 따라 서북쪽으로 흘러온 물줄기는 신대휴계소 부근에서 구천동계곡으로 들어간다. 월음령계곡 양쪽 평탄대지에 제철유적이 밀집 분포되어 있는데, 전북 동부지역에서 그 밀집도가 가장 높다.

무주군 무풍면 삼거리 일대에서도 제철유적이 상당수 발견됐다. 백두대간의 빼재 북쪽 기슭에서 발원하는 모도막골과 여러 갈래의 골짜기마다 제철유적이 자리한다. 그런가 하면 덕유산 서쪽 덕산계곡에서도 많은 제철유적이 발견되어 커다란 관심을 모았다. 덕유산 향적봉을 중심으로 사방에 35개소의 제철유적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한마디로 덕유산은 지붕 없는 제철유적 박물관이다.

2019년 전주문화유산연구원 주관으로 제철유적을 대상으로 첫 발굴조사가 시작됐다. 월음령계곡 입구에 위치한 무주 삼거리 제철유적 B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반달모양으로 파낸 채석장과 제련로, 숯가마, 퇴적구 등 다양한 유구가 함께 조사됐으며, 노벽편과 슬래그로 구성된 퇴적구는 길이 46m, 너비 30 내외이다. 유물은 기벽이 두껍고 승석문이 표현된 회청색 경질토기편과 17세기를 전후한 백자편과 옹기편이 수습됐다. 조선 후기 몰래 광산을 경영하던 잠채층 아래에 또 다른 선대 유구층이 확인되어 큰 관심을 끌었다.

덕유산은 옛부터 덕이 많아 넉넉한 산 혹은 너그러운 산으로 불린다. 과연 그 잠재력은 어디서 나왔을까? 백두대간 백



무주 대차리 7호분 유물 출토 상태

암봉에서 중봉 지나 북쪽으로 1.6k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최고봉 향적봉에 오르면 북으로 적상산을 아래에 두고 멀리 황악산과 계룡산, 서쪽으로 운장산과 대둔산, 남쪽으로 지리산, 동쪽으로 가야산이 보인다. 나제통문에서 백련사까지

33경으로 유명한 최고의 절경지로 1975년 오대산과 함께 10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덕유산 동쪽 구천동은 그 지명의 유래에서 두 가지 이야기가 전해진다. 하나는 옛날 덕유산에서 9천여 명의 성불공자(成佛功者)가 살았다 하여 구천동이라고 불렀고, 다른 하나는 구씨(具氏)와 천씨(千氏)가 살며 집안싸움을 하는 것을 어사 박문수가 해결하여 구천동(具千洞)이라 불리다가 지금의 구천동(九千洞)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어느 이야기와 더 깊은 관련이 있는가를 단언할 수 없지만 덕유산 일대에 절이 많았다는 것은 분명하다.

통일신라 신문왕 때 백련선사가 초암을 짓고 수도하던 중 흰 연꽃이 피어나 토굴을 처음 지었다고 한다. 고려 때는 14개의 암자를 거느렸고, 조선 중기에는 부휴, 정관, 벽암, 매월당 등 명승들이 백련사를 거쳐 갔다고 한다. 백련사는 1960년대 본래의 절터에서 얼마간 떨어진 지금의 자리에 중창됐다. 아직까지 덕유산의 절터를 찾는 한 차례의 지표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아 다른 절터는 대부분 베일 속에 드리워져 있다.

고려 때 14개의 암자를 거느리고 9천여 명의 불자들이 살아



무주 대차리 고분군 출토유물



덕유산 향적봉 가을 모습

갈 수 있었던 힘은 과연 어디에서 나왔을까? 다시 말해 절 혹은 승려에게 돈이나 음식을 보시하는 시주의 본바탕은 무엇이 있을까? 최근에 덕유산 일대에서 그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한 제철유적이 시주의 근원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흔히 철광석을 녹여 철을 생산하던 제철유적은 경제의 백미이자 국력의 원천으로 고고학에서 최고의 유적으로 평가받는다.

무주읍은 백제 적천현으로 통일신라 때 단천현(丹川縣)이라 하다가 고려시대 주계현(朱溪縣)으로 그 이름을 고쳤다. 우리 말로 쇳물 혹은 녹물이라는 의미가 담긴 지명을 1500년 동안 지켜왔다. 무풍면은 신라의 무산현으로 통일신라 때 무풍현(茂風縣)으로 그 지명이 바뀌었는데, 지명 속에 지상낙원의 의미가 숨어있다. 덕유산, 향적봉, 달암재 등 최고의 지명들은 철

광석을 녹여 철을 생산하던 제철유적이 탄생시켰을 것으로 짐작된다.

전북가야와 신라, 백제 등 삼국의 각축장과 덕유산 향적봉으로 상징되는 무주군은 한마디로 철이다. 덕유산 속 14개 사찰에서 9천 여 명의 불자들이 신앙생활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주의 근원은 철 생산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1970년대 현재의 위치에 이전 복원된 백련사를 제외하면 다른 절터는 아직도 그 위치를 알지 못하고 있다. 하나의 산에 14개의 사찰을 함께 거느린 것은 극히 이례적인 사례이다. 앞으로 무주 덕유산 제철유적과 절터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발굴조사가 추진되길 간절히 기원해 본다.

전북가야와 백제의 국경, 완주군

백제 웅진 천도 뒤 정치적 불안, 전북가야의 진출 완주군 동북부 제철유적, 산성 및 봉수 최대 밀집

2017년 11월 25일 백두대간 속 전북 동부지역에 기반을 두고 가야 왕국으로까지 발전했던 모든 가야세력을 하나로 묶어 전북가야라고 이름을 붙였다. 여기서 전북가야는 도민들을 국정과제에 초대하려는 홍보적인 의미만 담겨있다. 1500년 전 전북가야의 위상과 그 역동성을 세상에 알리고 후손들에게 전북가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영·호남 사람들이 오갔던 백두대간 치재에 '봉수왕국 전북가야' 기념탑도 세웠다. 전북가야 선포식 때 완주군도 초대를 받았는데, 완주군에서 가야 유적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2018년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주관으로 완주군 지표조사에서 삼국시대 산성 및 봉수, 제철유적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전북 동부지역에서 단일 지역 내 관방유적과 통신유적의 밀집도가 가장 높다. 완주군 동북부 일대에 산성 및 봉수가 집중적으로 배치된 것은 전북가야와 백제가 국경을 마주했던 역사적인 배경에서 기인한다. 1500년 전 장수가야가 완주군 동북부 일대로 진출하여 백제와의 국경을 형성했음을 말해준다. 금강과 만경강 분수령이자 전북과 충남의 행정경계를 이룬 산줄기가 여기에 해당된다.

삼국시대의 봉수가 그 모습을 온전하게 드러냈다. 완주군 운주면 고당리 탄현 봉수로 솟고개 서쪽 산봉우리에 위치한다. 완주군 고당리 삼거리마을 북쪽에 위치한 그개로 달리 탄현(炭峴)으로도 불린다. 이 산봉우리 정상부에 두께가 얇은 판석형 할석만을 가지고 석축을 쌓았는데, 석축은 그 평면형태가 원형으로 상단부가 하단부보다 좁다. 전주문화유산연구원 주관 발굴조사를 통해 장수가야가 처음 터를 닦고 백제가 원형의 보루를 다시 쌓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북가야와 백제를 함께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충남 부여, 논산 일대에서 금남정맥을 넘어 진안고원과 금산분지 방면으로 향하는 두 갈래의 교통로 사이에 탄현 봉수가 있다. 전북가야의 서북쪽 관문으로 그 부근에 제철유적, 관방유적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1500년 동안 봉수가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석축 내부를 흙이 아닌 돌로 채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북가야가 백제와의 국경에 국력을 담아 견고하게 쌓은 축조기법도 중요하게 작용했다. 2019년 8월 전라북도 문화재위원회 회의에서 전라북도 기념물 지정 안건이 통과됐다.



완주 종리산성에서 바라본 경천저수지와 그 주변



원주 탄현 봉수 발굴 광경

진안고원의 북쪽 관문 원주 용계산성을

사이에 두고 탄현 봉수 서쪽에

원주 불명산 봉수가 있다.

불명산佛明山은 달리 극락이라는 의미가 담긴

불교 용어로 그 서쪽 기슭 중단부에

원주 화암사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하앙식下昂式 지붕으로

유명한 극락전이 천년 역사를 간직한

화암사의 본전이다.

불명산 산봉우리 정상부에 판석형 할석을 가지고 쌓은 장방형의 봉대가 있는데, 봉수의 동벽 중앙에는 봉대의 위쪽으로 오르는 계단이 있다. 자연암반을 파내 마련된 계단을 보고 있노라면 큰 감동이 밀려온다.

장방형의 봉대는 산을 찾은 사람들이 돌탑을 쌓는 과정에 봉대가 얼마간 훼손됐지만 그 동남쪽에 불을 피우던 시설이 남아있다. 봉수의 발화시설은 중앙에 2매의 장대형 석재를 나란히 놓고 그 사방을 원형으로 둘렀다. 현지조사 때 봉대로 오르는 계단과 봉대에서 승석문이 희미하게 시문된 적갈색 연

질토기편이 수습됐다. 이 봉수의 남쪽에는 전주를 출발하여 원주 용계산성, 금산 백령산성을 거쳐 문경 방면으로 향하는 옛길이 통과하던 용계재가 있다. 용계재는 왕이 넘던 고갯길로 그 주인공이 전원왕으로 추정된다.

원주 불명산 봉수에서 서쪽으로 4km 거리를 두고 원주 용복리 산성이 있다. 달리 만수산성으로 불리는 곳으로 산성 내 양쪽에 봉대로 추정되는 봉수시설이 잘 남아있다. 불명산 봉수와 비슷하게 판석형 할석을 가지고 성벽을 쌓았는데, 성벽이 심하게 무너진 서벽과 북벽을 제외하면 그 보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다. 산성 내 동쪽과 서쪽 양쪽에 배치된 봉수시설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 발화시설도 축조기법이 다른 봉수들과 서로 비슷하다. 1970년대 전주교대 최근부 교수가 그 역사성을 논문으로 세상에 알렸다.

원주 용복리 산성 서쪽에 각시봉 봉수가 있다. 지금부터 50여 년 전 각시봉에 올라 둘로 쌓은 석축을 봤던 기억을 되살리고 그 사실을 제보해 주어 봉수가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경천저수지 북쪽에 우뚝 솟은 각시봉 정상부에 봉수가 있는데, 장방형 봉대의 축조기법과 평면형태, 발화시설의 위치 등이 원주 탄현·불명산 봉수와 똑같다. 봉대의 북벽 중앙에 등봉시설과 봉대의 동남쪽에 불을 피우던 시설이 양호하게 남아



완주 상운리 출토 철기유물

있다. 동시에 완주군 일원에 집중 배치된 10여 개소의 봉수들이 한눈에 잘 조망된다.

완주군 화산면 소재지 북쪽 산봉우리 정상부에 고성산성이 있다. 산성의 평면 형태와 성벽의 축조기법, 봉수시설 등의 특징이 위에서 설명한 용복리 산성과 흡사하다. 현지조사 때 유물이 발견되지 않아 상당한 의구심을 자아냈는데, 오래전부터 미완성의 성(城)과 관련된 이야기가 전해온다. 아직은 한 차례의 발굴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아 산성의 성격을 단정할 수 없지만 장수가야가 완주군 동북부 일대로 진출하여 쌓았지만, 그 운영 기간이 그다지 길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북 완주군과 충남 논산시 경계에 위치한 완주 천호산성·성태봉 산성에서도 봉수시설이 남아있다. 전자는 산성의 서쪽 성벽을 두 겹으로 쌓았는데, 장수가야가 처음 터를 닦고 사비기 백제가 바깥 성벽을 덧댄 것으로 보인다. 후자는 산봉우리 정상부에 추정 봉수시설을 배치하고 그 주변을 성벽으로 둘러쌌다. 여러 갈래의 내륙교통로가 하나로 합쳐지는 경천면 소재지 남쪽 옥녀봉에 자리한 종리 산성에서도 봉수시설이 발견됐다. 삼국시대 산성 및 봉수의 분포 양상을 근거로 전북과 충남

의 경계를 이룬 산줄기가 한 동안 장수가야와 백제의 국경이 형성됐을 것으로 추측된다.

전북가야와 관련된 유물도 완주군에서 나왔다. 진안고원 내 장계분지로 향하는 내륙교통로와 만경강 내륙수로가 교차하는 완주 배매산성·구억리 산성에서 가야토기편이 출토됐는데, 만경강유역에 잘 구축된 교역망을 전북가야가 이용했음을 유물로 보여줬다. 완주군 동북부 일대로 전북가야의 진출이 철산개발 혹은 철의 유통과 관련이 깊을 것으로 짐작된다. 아직도 봉수를 제외하면 또 다른 가야문화유산이 완주군 일원에서 더 발견되지 않았다. 아무래도 가야에 대한 역사 인식의 전환이 요망된다.

가야의 철기를 상징하는 판상철부는 유적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완주 상운리에서는 단야도구와 판상철부가 함께 나왔는데, 전북 동부지역에서 생산된 철이 이곳에서 다시 가공됐음을 알려준다. 완주 신평·장포에서는 판상철부 등 철기류가 다량으로 나와 만경강 내륙수로를 이용하여 철이 널리 유통됐음을 알 수 있다. 전북 동부지역에서 생산된 철의 가공과 유통을 담당하던 토착세력집단이 완주군 일원에 있었을 것으로 짐



완주 수계리 신포 유적 유물

작된다. 삼국시대 전북가야의 아이언 벨트(Iron Belt)가 완성된 것이다.

2018년부터 전북가야의 대형고분과 제철유적, 봉수 및 산성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행정당국의 발굴비 지원으로 발굴조사가 본격 시작됐다. 향후 완주군 일대에서 발견된 가야문화유산을 역사교육의 장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보존대책

및 정비방안도 조속히 마련됐으면 한다. 2200년 전 바닷길로 전해져 전북혁신도시와 완주 상운리 등 완주군 일원에서 화려하게 꽃피웠던 철과 1500년 전 ICT로 상징되는 봉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완주박물관이 건립됐으면 한다. 2019년 완주 봉실·천호산성에서 봉수시설이 발견되어, 2012년 개통된 봉실산 건강 둘레길과 연계전략도 추진됐으면 한다.



완주군 화산면 고성산성과 각시봉 봉수

임실군

임실 월평리 산성, 사통팔달 내륙 교통망의 허브 가야토기와 백제토기 공존, 문화상으로 점이지대

금남호남정맥 팔공산 서북쪽 데미샘에서 섬진강이 발원한다. 전북 동부지역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섬진강유역은 백두대간과 금남호남정맥, 호남정맥이 자연경계를 이룬다. 일찍부터 섬진강이 제공하는 풍부한 물로 농경문화가 발달했고, 섬진강의 내륙수로 문화교류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삼국시대 때는 전북가야와 백제가 등을 맞댄 국경이자 완충지대로서 문화상으로 점이지대를 이뤘다. 섬진강유역의 산성 중 가장 관심을 끄는 곳이 성수면 월평리 산성이다. 오래전부터 삼한시대 옛 성터로 학계에 보고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전주와 남원을 잇는 17번 국도변에 산성이 있는데, 임실군 성수면 월평리에 속한다. 성수산에서 발

원해 줄곧 서쪽으로 흐르다가 갑자기 그 방향을 남쪽으로 꺾는 오수천 동쪽 산봉우리에 산성이 있다. 성수면 월평리 성밀마을이 산성의 존재를 세상에 알렸다.

임실 월평리 산성은 세 갈래의 산자락 사이에 형성된 두개의 계곡을 아우르는 포곡식이다. 산봉우리를 중심으로 남쪽 두 개의 골짜기 구간을 제외하면 성벽은 대부분 산자락의 정상부를 통과한다. 성돌은 깎돌을 장방형으로 거칠게 다듬어 쌓았는데, 성돌과 성돌 사이는 소형 깎돌과 기와편으로 메꾸었다. 성벽은 막쌓기로 남쪽 구간이 대부분 석성을 이루고 있으며, 다른 구간은 산봉우리의 가파른 지형을 그대로 살린 토성혼축성이다.



섬진강유역 사통팔달했던 교역망의 분기점 임실 월평리 산성 항공사진



임실 월평리 산성 남쪽 성벽

임실군 성수면 월평리 산성은 섬진강유역 심장부에 위치해 줄곧 내륙 교통망의 허브 역할을 담당했다. 2018년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주관 발굴조사에서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토기편과 기와편, 자기편이 다량으로 쏟아져 천년 이상 산성이 운영됐음을 유물로 증명했다. 무엇보다 백제와 후백제 유물이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백제의 지방 거점이자 후백제 도읍 전주의 남쪽 관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전북 동부지역에 그물조직처럼 잘 갖춰진 여러 갈래의 내륙교통로가 하나로 합쳐지는 곳이다. 한성기 백제의 의해 축성된 진안 와정토성을 경유하여 진안고원을 종단하는 한성기 간선교통로와 만경강유역에서 호남정맥의 슬치를 넘어 온 웅진기 간선교통로가 이곳에서 만난다. 그리고 백두대간의 치재를 넘어 운봉고원을 거쳐 경상도로 향하는 간선교통로와 호남정맥 가는정이를 넘어 동진강하구 가야포까지 이어진 내륙교통로가 나뉘는 분기점이다.

호남정맥 슬치 못지않게 사람들의 왕래가 많았던 곳이 가는정이다. 호남정맥 묵방산과 성옥산 사이 고갯마루로 섬진강에서 동진강유역으로 나아갈 때 꼭 거쳐야 하는 큰 고갯길이다. 일찍부터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 선사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의 다양한 문화유적이 가는정이 부근에 조밀하게 자리하고 있다. 동시에 동진강 하구 가야포(加耶浦)까지 이어진 내륙교통로가 통과하는 곳으로 선사시대부터 줄곧 교통의 중심지를 이루었다.

조선 철종 8년(1857)에 만들어진 ‘동여도’에 가야포(加耶浦)가 표기되어 있다. 1864년 김정호가 지은 ‘대동지지’ 부안현 산수조에도 가야포가 등장한다. 동진강 본류와 지류를 따라 잘 갖춰진 내륙수로의 종착지로 동진강 하구 부안군 계화면 궁안리(宮安里) 용화동마을 부근에 위치한다. 서해 연안항로의 기항지이자 해양제사를 지낸 부안 죽막동 제사유적에서 위쪽으로 20km 가량 떨어진 곳이다.

475년 가라왕 하지가 중국 남제에 사신을 파견했는데, 당시 사신단이 이용했던 국제교역항이 가야포로 추측된다. 동시에 전북 동부지역에서 철의 왕국으로 융성했던 운봉가야, 장수가야가 철을 생산하는 과정에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제련로에 넣었던 굴이나 조개껍질을 가야포에서 조달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선사시대부터 줄곧 새만금을 무대로 화려하게 꽃피웠던 전북 해양문화의 역동성과 국제성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준 곳이 가야포다.

삼국시대 때 임실군이 속한 섬진강유역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가야문화와 백제문화가 공존한다는 사실이다. 섬진강유역에서는 가야토기가 일색을 이루지 못하고 백제토기와 섞여 있거나 지역색이 강한 가야토기도 서로 혼재된 조합상을 보인다. 그리하여 섬진강유역에 지역적인 기반을 둔 토착세력의 실체와 전북가야와의 관련성을 밝히는데 어려움도 적지 않다. 아직은 가야 왕국의 존재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삼국시대 문화유적을 대상으로 발굴조사가 미진한 것과 관련이 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 가야 왕국 기문국이 임실군 임실을 일대에 있었던 것으로 본 주장이 널리 통용되고 있다. 그러나 섬진강유역을 대상으로 한 세기 동안 학술조사가 왕성하게 추진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야 왕국의 존재를 고고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야문화유산의 역사성을 밝히기 위한 발굴조사가 절실하다.

1972년 임실을 금성리 화성마을 동남쪽 산에서 사방공사를 실시하는 과정에 가야토기, 백제토기가 섞인 상태로 나왔다. 당시 3기의 무덤이 그 모습을 드러냈는데, 오래전 유적이 심하게 훼손되어 무덤의 구조를 상세하게 파악하지 못했지만 일단 가야의 수혈식 석곽묘로 추정됐다. 2017년에는 마한의 분구묘가 더 조사됐지만 가야의 수장층 무덤으로 알려진 가야의 중대형 고총은 여전히 발견되지 않고 있다.

2010년 청웅면 석두리에서 수혈식 석곽묘가 더 조사되어 큰 관심을 끌었다. 임실 구고리 산성에서 서남쪽으로 길게 뻗어 내린 산자락 정상부로 2기의 봉토분이 조사됐다. 오래전 도굴로 유물의 출토량은 많지 않았지만 가야토기와 백제토기가 섞인 상태로 토기류와 철기류, 장신구류가 나왔다. 임실 석두리 1호분 내 3호 석곽에서 10여 점의 철못이 나와 섬진강유역 가야묘제만의 지역성이 다시 확인됐다.



임실 금성리 고분군 출토 유개장경호

임실 금성리 출토 살포

임실군에서 10여 개소의 삼국시대 봉수가 학계에 보고됐다. 현재까지 240여 기의 가야 중대형 고총이 학계에 보고된 장수군에서 시작된 한 갈래의 봉수로가 임실군을 동서로 가로지른다. 임실 봉화산을 경유하여 호남정맥 치마산과 경각산까지 이어진다. 동진강 하구 가야포에서 출발해 장수군 장계분지까지 이어진 옛길을 따라 선상으로 이어진다. 삼국시대 교통의 중심지이자 전략상 요충지로서 임실군의 위상을



임실 월평리 산성 현장설명회



임실 성미산성 내 집수정

살필 수 있다.

삼국시대 임실군의 교통망을 장악했던 세력집단은 당시의 패권을 차지한 뒤 그 영향력을 강하게 행사했던 것 같다. 임실군 북쪽 관문 슬치 부근과 오수천을 따라 산성 및 봉수가 집

중적으로 배치되어, 한동안 전북가야와 백제가 국경을 맞댄 당시의 역사적 사실을 대변해 줬다. 임실 월평리 산성을 중심으로 사통팔달했던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임실군이 전북가야 교역망의 허브였음을 알 수 있다.



임실 월평리 산성 발굴현장 모습

전북가야 서쪽 경계, 순창군

삼국시대 관방유적·분묘유적 분포, 발굴조사 미진
마한·백제·가야 유물 공존, 섬진강 동쪽만 존재

우리나라 전통지리학의 지침서가 '산경표'다. 순창군은 '산경표'의 고향으로 호남지방을 가로지르는 호남정맥이 서쪽을 병풍처럼 감싸주고 섬진강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른다.

이제까지의 지표조사에서 가야계 문화유적은 섬진강을 중심으로 동쪽 동계면에서만 확인되었고, 순창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섬진강 서쪽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아마도 섬진강이 전북가야의 서쪽 경계를 이루었다는 당시의 역사적 사실을 증명해 주었다.

1980년대 후반 순창 동계중고교 향토관에서 우연히 가야토

기를 보고 깜짝 놀랐다. 가야토기의 문양을 상징하는 물결무늬가 선명하게 새겨진 긴 목 항아리가 전시되어 있었다. 당시 학교 관계자가 동계면 현포리 연산마을 동쪽 밭에서 출토된 것을 마을 주민들이 학교에 기증했다고 설명해 주었다. 가야토기가 나온 일대를 둘러보고 가야 고분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지금까지 한 차례의 학술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아 안타깝다.

2013년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에서 가야 고분이 그 존재를 처음 드러냈다. 섬진강이 줄곧 남쪽으로 흐르면서 동쪽에 만



순창군 동계면 신흥리 합미산성에서 바라본 채개산 봉수

들어 놓은 비교적 넓은 충적지에 위치한다. 당시 순창군 동계면과 적성면을 연결하는 도로공사 구역에 포함된 일부 지역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발굴조사에서 널무덤·독무덤·돌방무덤 각각 한기씩, 23기의 돌덧널무덤이 조사됐다. 모두 삼국시대 무덤들로 섬진강 동쪽 평탄한 들판에 입지를 두어 학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순창 구미리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 한 기의 가야 고분은 백제 고분과 직교되게 동서로 장축방향을 두었다. 유물은 토기류와 철기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금동제 귀걸이, 가락바퀴도 포함되어 있었다. 무덤의 주인공이 생전에 쓰던 생활용기들로 마한계, 백제계 유물이 절대량을 차지하고 19호분에서 나온 가야토기편이 일부 섞여있었다. 섬진강유역으로 전북가야의 진출을 말해 주었지만, 전북가야의 존속 기간은 길지 않았을 것으로 점쳐진다.

순창읍 교성리 생활유적에서도 가야토기가 더 나왔다. 모두 11기의 집자리가 그 모습을 드러냈는데, 집자리는 마한부터 백제까지의 특징이 공존한다. 모든 집자리는 그 평면형태가 방형으로 4개의 기둥구멍과 부뚜막 시설이 확인됐다. 유물은 마한계와 백제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릇받침 등 가야토기가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순창군을 중심으로 거미줄처럼 잘 갖춰진 교통로로 마한과 백제, 전북가야가 활발하게 교류했음을 보여 주었다.

순창군 동계면 신흥마을 북쪽에 합미성이 있다. 아직까지 한 차례의 발굴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백제의 산성으로 학계에 보고됐다. 2018년 현지조사 때 두 겹의 성벽과 동쪽 산봉우리 정상부에서 봉수시설이 발견됐다. 성벽은 마치 방형 혹은 장방형으로 잘 다듬은 성돌로 쌓은 외벽과 크기가 일정



순창 합미성 동쪽 성벽 모습

하지 않은 깎돌로 쌓은 내벽이 확인됐다. 전북가야가 산성의 터를 처음 닦은 뒤 후백제가 전주를 지키기 위해 다시 쌓은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순창 군민들로부터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곳이 대모산성이다. 달리 홀어머니산성으로 불리고 있는데, 백제가 처음 산성의 터를 닦고 고려, 조선까지 운영된 것으로 밝혀졌다. 여러 차례의 발굴조사에서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유물이 다량으로 쏟아졌지만, 가야 유물은 전혀 출토되지 않았다. 섬진강유역으로 진출했던 전북가야가 섬진강을 건너 순창읍 일대로까지 나아가지 못했음을 유물로 뒷받침해 주었다.

순창군에서도 5개소의 봉수가 학계에 보고됐다. 임실 봉화



순창 채개산 봉수 남쪽 기슭



순창 채개산 봉수와 섬진강

산 봉수에서 시작해 오수천을 따라 서남쪽으로 이어지다가 유등면 오교리 산성에서 끝난다. 동계면 신흥리 합미성 서쪽에 현포리 말무재 봉수가 있는데, 이 봉수를 중심으로 서북쪽에 적성면 석산리 생이봉 봉수, 서남쪽에 채개산·오교리 봉수가 있다. 다른 지역의 봉수들과 달리 장방형의 봉대 및 산성의 성벽 축조기법이 매우 조잡하여 갑자기 일시에 쌓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전주와 순창을 이어주는 27번 국도가 통과하는 노령에서 동쪽에서 3km 떨어진 곳에 생이봉이 있다. 순창군 적성면 석산리와 인계면 심초리,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경계로 그 동쪽에 새목재가 있다. 섬진강 서쪽 벌동산과 두류봉 사이 산봉우리로 그 정상부에는 봉수시설과 아직은 성격이 파악되지 않은 석축시설이 남아있다. 섬진강유역에서 학계에 보고된 다른 봉수들과 마찬가지로 아주 조잡하고 거칠게 쌓아 유구의 속성이 상통한다.

적성면 고원리 원촌마을 주민들 제보로 채개산 봉수가 세상에 알려졌다. 지금부터 60여 년 전 채개산 정상부에서 사람의 무릎 높이까지 쌓은 석축시설을 보았다고 제보해 주었다. 현지조사 때 화산에서 동북쪽으로 450m 떨어진 정상부에서 자

연암반을 장방형으로 파낸 뒤 지형이 낮은 남쪽에서 석축시설을 확인했는데, 본래 봉수의 봉대로 추정된다. 그리고 남쪽 기슭에는 암반층을 상당히 넓게 파내어 마련된 봉수군의 생활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순창군 유등면 오교리와 적성면 지북리 경계에 오교리 산성이 있다. 섬진강 서쪽 산봉우리에 입지를 두었는데, 산성의 평면 형태는 동쪽이 길고 서쪽이 짧은 사다리꼴모양이다. 성벽은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할석을 가지고 조잡하게 쌓았는데 대부분 무너져 내렸다. 산성 내 가장 높은 서쪽 산봉우리 정상부에서 봉수시설이 발견됐는데, 발화시설은 그 평면형태가 원형을 이룬다.

『일본서기』에 가야 왕국 반파가 백제와 3년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 산성 및 봉수를 축조했던 것으로 등장한다. 514년 반파가 자탄, 대사에 성을 쌓고 봉수를 설치한 것으로 문헌에 기록되어 있다. 영산강유역에 기반을 둔 마한세력이 전북가야와 교류하려면 대부분 순창봉수로가 통과하는 오수천을 따라 동서로 통과해야 한다. 순창 오교리 산성 부근 태자·월탄·화탄마을은 그 지명 속에 당시의 역사적인 의미가 숨어있지 않을까?

2018년 순창군 쌍치면 학선리에서 제철유적이 그 존재를 드러내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호남정맥에 우뚝 솟은 국사봉 서북쪽 기슭 말단부 송어실마를 입구에 위치한다. 현지조사 때 학선리 오룡마을에서 송어실마로 이어진 농로를 따라 가면 다리를 건너 왼쪽 계단식 논이 여기에 해당된다. 오래전 철광석을 녹여 철을 생산하는 과정에 제련로에서 뽑아낸 슬래그가 폭 넓게 흩어진 밭에서 청자편과 분청사기편, 백자편 등의 유물이 수습됐다.

삼국시대 때 순창군 문화유적은 마한, 백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여기에 가야가 약간 섞인 분포 양상을 보였다. 475년 공주로 도읍을 옮긴 백제가 거의 반세기 동안 정치적인 불안에 빠졌을 때 전북가야가 순창군 동쪽까지 진출했음을 말해준다. 전북가야가 순창 합미성·오교리 산성을 축성한 뒤 산성 내에 봉수를 배치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1500년 전 순창군으로 전북가야의 진출과 그 존속 기간을 밝히기 위한 발굴조사가 절실히 요망된다.



순창 채개산 봉수 추정 봉대 모습



1857년에 제작된 동여도 내 순창과 그 주변 지역

전북가야 삼국시대 봉수왕국이다

전북 동부지역 100여 개소 봉수, 전북가야 영역과 일치
1500년 전 ICT, 백제의 동태 파악 및 제철유적의 방비

봉수란 낮에는 연기와 밤에는 횃불로써 변방의 급박한 소식을 중앙에 알리던 통신제도이다. 1894년 갑오개혁 때 근대적인 통신제도가 도입되기 이전까지 개인정보를 다루지 않고 오직 국가의 정치·군사적인 전보기능만을 전달했다. 우리 조상들

의 나라 사랑 정신이 살아 숨 쉬는 통신유적의 백미로 역사적인 위상과 가치가 매우 높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삼국시대와 조선시대 봉수가 함께 존재하는 곳이 전북지역이다. '삼국유사'에 가락국 시조 수로왕이 봉화를 사용했다고 전한



조선시대 5봉수 전북가야 봉수 분포



장수 봉화산 봉수와 표지석

다. ‘삼국사기’에 백제 온조왕 10년 봉현(烽峴)을 비롯하여 봉산(烽山), 봉산성(烽山城) 등이 등장한다. ‘일본서기’에 가야 왕국 반파가 513년부터 515년까지 3년 동안 백제와 전쟁을 치루면서 봉후제(烽候制)를 운영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삼국시대 봉수의 존재와 함께 당시 봉수제가 운영됐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1123년 서공이 편찬한 ‘선화봉사고려도경’에 송나라 사신들이 배를 타고 흑산도에 도착하면 언제나 야간에는 항로 주변 산봉우리에서 봉수 불을 발견할 수 있었고, 봉화는 순차적으로 밝혀서 임금이 있는 왕성에까지 이어졌다고 기록되어 있다. 당시 봉수가 선박의 안전 항해를 위해 등대역할도 담당했음을 알 수 있다. 송나라 사절단을 초대하여 군산도 군산정에

서 김부식 주관으로 국가 차원의 영접행사가 열렸다.

고려 의종 3년(1149) 서북면병마사 조진약이 봉수의 거화수를 규정하고 봉수군에게 생활의 대책을 마련하는 상소를 올렸다. 그리고 감독 책임자까지 배치한 사실로 보아 봉수의 격식이 규정됐고, 야화(夜火)와 주연(晝煙)으로 구분하여 거화수도 마련했다. 우리나라에서 봉수제의 시작이 고려시대로 굳어진 결정적인 근거이다.

조선시대 봉수제는 세종 때 고려의 봉수제를 바탕으로 당나라의 제도를 크게 참고하여 거화거수 등 관계 규칙을 새로 정했다. 그리고 연변의 각 봉대를 새로 축조하고 나아가 봉수선로를 일제히 확정하는 등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우리나라 봉수제가 거의 체계적으로 잘 정비된 최전성기로 조선 전기의



전북과 충남 도계 완주군 동북부

안정기를 이끌었다. 전북 동부지역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학계에 보고된 봉수는 대부분 조선시대 만들어진 것들이다.

‘조선왕조실록’에 연산군 10년 일시적으로 봉수제를 폐지했고, 중종 대에 다시 복구하기도 했다. 선조 대에 이르러서 봉수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파발제를 도입하여 봉수의 역할이 크게 감소됐고, 숙종 때 봉수 변통론으로 전국 각지의 봉수 재편이 이뤄졌다. 숙종 이후에는 봉수제와 파발제도가 군사적 통신의 기능을 함께 담당하게 됐다.

전북 서해안을 따라 배치된 고창 구시포, 부안 호고리·점방산, 김제 길곶, 군산 점방산·오성산 봉수는 남해안, 서해안으로 적의 침입을 감시하는데 큰 목적을 두었다. 순천 돌산도에서 출발해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를 거쳐 최종적으로 서울 개화산 봉수에 도달한다. 그리고 군산 어청도, 연도, 위도 등 바닷길을 따라 배치된 봉수는 안전 운항을 담당했던 것 같다.

전북 서해안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된 봉수는 조선시대 5봉수로 중 제5거에 해당하는 연변봉수이다. 서해의 해안선을 따라 이어지다가 군산 점방산 봉수에서 두 갈래로 갈라진다. 하나는 충남 서천 운은산 봉수로 이어져 서해의 해안선을 따라 북쪽으로 이어진 간봉이며, 다른 하나는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충청감영이 설치된 공주를 경유하는 직봉이다.

고려 말의 봉수선로가 계승되어 조선 초기에 정비된 5봉수로의 직봉과 간봉이 전북 동부지역을 통과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봉화산이 자리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북 동부지역에서 106개소의 봉수가 학계에 보고됐는데, 남원시와 장수군 등 전북가야의 영역과 거의 일치한다. 모두 일곱 갈래의 봉수로가 복원됐는데, 모든 봉수로의 최종 종착지가 장수군 장계분지로 밝혀졌다.

모든 봉수와 봉수를 이어주는 봉수로는 출발지와 종착지가 있다. 그리고 봉수로의 최종 종착지에는 국가의 존재를 증명해 주는 대형고분이 있어야 한다. 전북 남원시 운봉읍·무주군·진안군·완주군·임실군·순창군, 충남 금산군에서 각각 시작하는 여러 갈래의 봉수로가 장수군 장계분지에서 만난다. 장수군 장계분지 동남쪽 백화산에서 뻗어 내린 산자락 정상부에 봉분의 직경이 20m 내외되는 120여 기의 가야 고총이 무리지어 있다.

진안고원 내 장수군에 지역적인 기반은 둔 장수가야는 4세기 말엽 경 처음 등장해 발전하다가 6세기 초엽 늦은 시기 백제에 복속됐다. 금남호남정맥이 백제의 동쪽 진출을 막았고, 사통팔달했던 교역망의 장악, 대규모 구리 및 철산개발이 핵심적인 배경으로 작용했다. 장수 노곡리·호덕리 마한의 말무



진안 태평 봉수 항공사진



백두대간 치재에 건립된 봉수정

덤이 계기적인 발전과정을 거쳐 240여 기의 가야 중대형 고총을 진안고원 내 장수군에만 남겼다.

장수 영취산 봉수 등 3개소의 봉수 발굴조사에서 장수군 내 가야 고총 출토품과 흡사한 삼국시대 토기들이 나왔다. 장수군에 지역적인 기반을 두고 가야 왕국으로까지 발전한 장수가야가 백제의 동태를 살피고 제철유적의 방비를 목적으로 봉수제를 운영했다. ‘일본서기’에 등장하는 가야의 봉수왕국 반파국과 관련하여 장수가야는 문헌에서 요구하는 모든 필수조건을 충족시켰다.

조선시대 봉수는 남북한 합쳐 700여 개소에 달한다. 당시 전국을 다섯 갈래의 길로 나누어 나라를 굳건히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산성에 비해 역사적인 가치와 의미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전북의 서해안과 섬에서 발견된 10여 개소의 봉수들 가운데 한 개소도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다. 우리들이 봉수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했으면 한다.

2017년 11월 25일 가야사 국정과제 일환으로 ‘봉수왕국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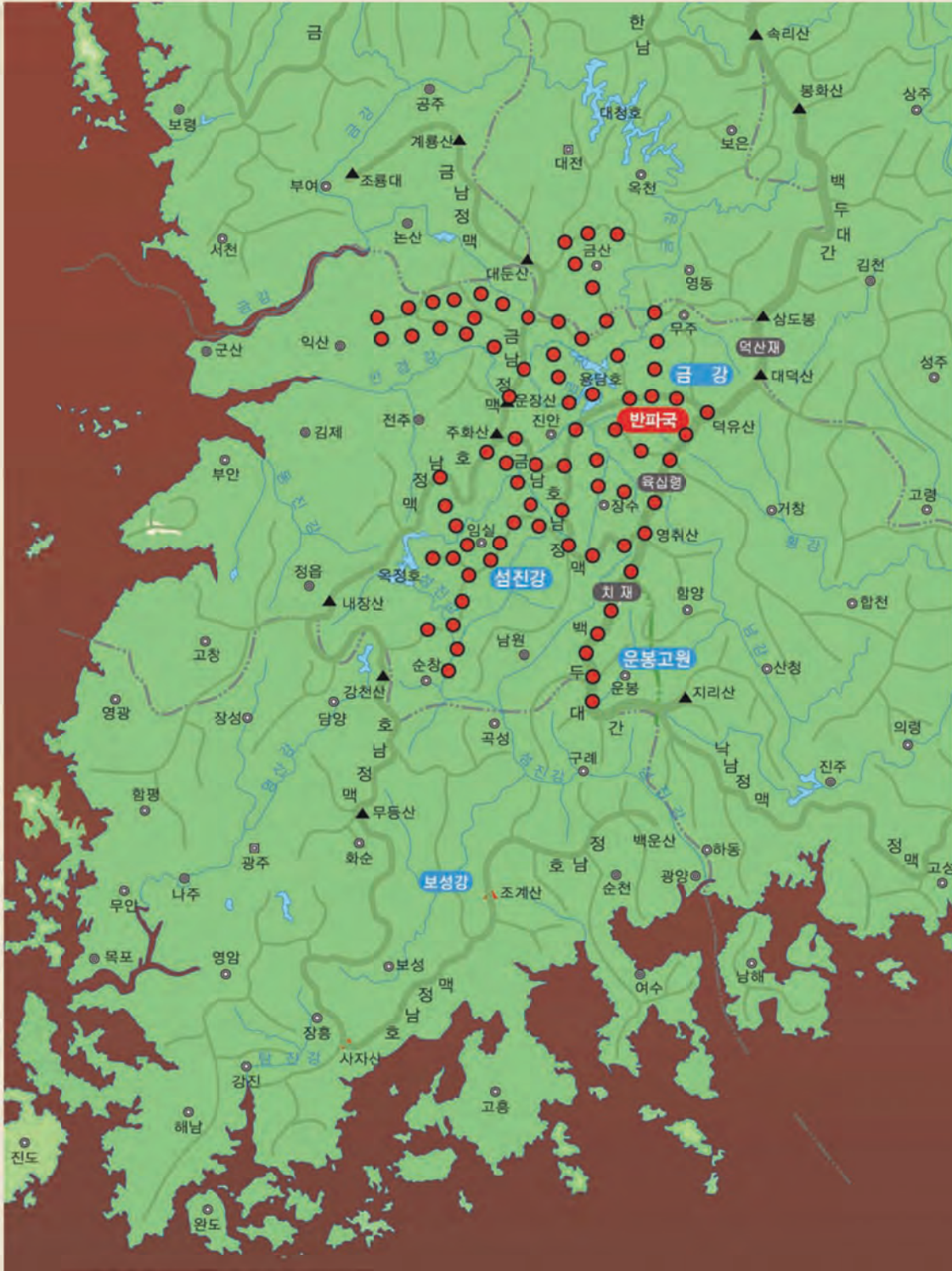


남원 봉화산 봉수 현장설명회

북가야 기념비를 백두대간 치재 부근에 세웠다. 1500년 전 ICT 가야왕국 장수가야는 100여 개소의 봉수를 전북가야의 영역에 남겼다. 백두대간 서쪽 유일한 가야왕국이자 유적과 유물로 방증된 삼국시대 유일한 봉수왕국이다. 앞으로 전북 동부지역에서 그 존재를 드러낸 삼국시대 주요 봉수의 현황과 역사성을 소개하려고 한다.

전북가야 봉수로를 복원하다

일곱 갈래의 봉수로 최종 종착지 장계분지
백제의 동향 파악과 제철유적의 방비 목적



전북 동부지역 봉수 분포양상과 봉수로 복원도



전북 동부지역 봉수로 최종 종착지 장수 삼봉리 산성 남쪽 성벽

가야의 왕릉 못지않게 가야 왕국의 존재여부를 방증해 주는 가장 진솔한 고고학 자료가 봉수이다. ‘양직공도’ 및 ‘일본서기’에 등장하는 가야의 왕국 반파가 513년부터 3년 동안 기문과 대사를 두고 백제와 갈등관계에 빠졌을 때 봉수제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삼국시대의 봉수가 존재하고 있을 개연성이 충분히 상정된다. 삼국시대 봉수가 전북 동부지역에서 그 존재를 드러내 역사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북 동부지역은 고려 말의 봉수선로가 계승되어, 조선 초기에 정비된 5봉수로의 직봉과 간봉이 통과하지 않아 봉수와 관련이 없는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지표조사에서 90여 개소 삼국시대의 봉수가 발견됐는데, 이들 봉수는 관방유적의 밀집도가 높고 가야계 문화유적이 발견된 지역에만 배치되어 있고, 제철유적 및 제동유적의 분포권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두드러진 특징을 보인다. 반면에 백두대간 산줄기 동쪽 영남지방에서는 여전히 삼국시대 봉수의 존재가 학계에 보고되지 않고 있다.

전북 동부지역에서 발견된 90여 개소 삼국시대의 봉수는 두 가지 속성에서 공통성을 보였다. 하나는 장수군 장계분지로 향하는 여러 갈래의 교통로를 따라 선상으로 배치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제철유적의 밀집도가 높은 지역을 통과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산봉우리 정상부에는 장방형의 봉대를 만들고 석성을 한 바퀴 둘렀는데, 산봉우리의 남쪽 기슭에는 건물지

가 위치한다. 조선시대 돌로 봉대를 쌓고 그 위에 연조를 설치했던 봉수와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전북 동부지역 봉수로의 최종 종착지가 장수군 장계분지로 밝혀졌는데, 지금까지 복원된 여러 갈래의 봉수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운봉고원의 남원봉수로이다. 운봉고원은 40여 개소의 제철유적이 밀집 분포된 대규모 철산지이다. 백두대간 산줄기가 운봉고원의 서쪽 자연경계를 이루고 있는데, 여원치와 치재 등 백두대간의 고갯길이 잘 조망되는 산봉우리에 산성 및 봉수가 세트관계를 보이면서 배치됐다. 백두대간을 따라 선상으로 이어진 남원봉수를 봉화산 봉수에서 그 방향을 북쪽으로 틀어 장수군 장계분지까지 이어진다. 운봉고원과 진안고원의 장수군에 지역적인 기반을 두고 가야 왕국으로까지 발전했던 양쪽 가야세력의 긴밀한 유대관계가 입증되는 대목이다. 운봉고원의 철산지와 양쪽 지역을 이어주던 교통로를 조망하기 위해 봉수가 배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나제통문 서쪽 무주봉수로이다. 충남 금산군 부리면과 전북 무주군 부남면 경계에 위치한 수로봉 봉수와 무주군 무주읍 북쪽 향로봉 봉수에서 시작한다. 이 두 갈래의 봉수로로는 노고산 봉수에서 하나로 합쳐져 장계분지까지 이어진 교통로를 따라 선상으로 배치되어 있다. 반면에 신라 무산현의 행정치소이자 30여 개소의 제철유적으로 상징되는 무주군 무풍면 일대에서는 한 개소의 봉수도 발견되지 않았다. 신라는 웅진 천도 이후 백제가 한 동안 정치적인 불안에 빠지자 백두대간의 덕



원주군 경천면 불명산 봉수 봉대 모습

산재를 넘어 대규모 철산지인 무풍면을 복속시켰다. 나제통문 동쪽 신라의 동향을 살피고 무주군 제철유적을 방비하기 위해 무주봉수로를 운영한 것으로 추측된다.

만경강유역에서 시작하는 원주봉수로이다. 금강과 만경강유역에서 진안고원으로 향하는 여러 갈래의 교통로가 하나로 합쳐져 금남정맥 작은짜리재를 넘는다. 원주군 운주면과 진안군 주천면 등 제철유적의 밀집도가 높은 지역을 통과하는 점에서 두드러진 특징을 보인다. 전북 원주군 비봉면과 익산시 여산면 경계에 위치한 천호산성에서 각시봉·불명산 봉수를 거쳐 탄현봉수까지 원주군 동북부를 동서로 가로지른다. 이곳에서 그 방향을 남동쪽으로 틀어 태평 봉수를 경유하여 최종 종착지 장계분지까지 이어진다. 가야와 백제의 국경을 형성한 만경강유역에 배치된 대부분의 봉수는 봉대의 평면형태가 방형으로 그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운장산을 경유하는 진안봉수로이다. 원주 봉림산 봉수에서 출발하여 대아저수지 북쪽 운암산 봉수를 거쳐 운장산 봉수에 당도한다. 전북 서부 평야지대가 한눈에 잘 조망되는 운장산에서 최종 종착지 장계분지까지는 교통로를 따라 비스듬히 이어진다. 운장산을 중심으로 사방에 20여 개소의 제철유적이 밀집 분포되어 있는데, 그 중심부를 진안봉수로가 통과한다. 만경강유역에 위치한 봉수는 봉대의 평면형태가 방형으

로 판석형 할석을 가지고 벽석을 쌓은 점에서 공통성을 보였다. 진안봉수로가 시작하는 봉림산 봉수에서 기벽이 두껍고 격자문과 승석문이 시문된 회색 연질토기편, 회청색 경질토기편 등의 유물이 수습됐다.

이상에서 살펴 본 전북 동부지역의 봉수는 어디에 위치하는가에 따라 유구의 속성에서 차이를 보였다. 금강과 남강유



삼국시대 봉수로 최종 종착지 장계분지



원주군 화산면 각시봉 봉수 봉대 서벽



원주군 화산면 종리 산성 내 봉수 관련 발화시설

역에 입지를 둔 봉수는 흙 또는 할석으로 방형 혹은 장방형 봉대를 마련하고 방화벽과 같은 테피식 성벽을 둘렀다. 섬진강유역은 흙이나 돌로 봉대를 마련했지만 성벽을 두르지 않았다. 만경강유역에서는 대부분 판석형 할석을 가지고 방형의 봉대를 쌓은 뒤 성벽을 두르지 않고 그 부근에 성벽의 축조기법이 흡사한 산성들이 배치되어 있다. 유구의 속성이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인 것은 전북가야 진출시기의 선후관계와 함께 본래 봉수의 역할과 기능이 다른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북 동부지역 여러 갈래의 봉수로가 하나로 합쳐지는 곳이

장수 삼봉리 산성이다. 금강과 남강유역에 입지를 둔 봉수는 흙 또는 할석으로 방형 혹은 장방형 봉대를 마련하고 방화벽과 같은 테피식 성벽을 둘렀다. 섬진강유역은 흙이나 돌로 봉대를 마련했지만 성벽을 두르지 않았다. 만경강유역에서는 대부분 판석형 할석을 가지고 방형의 봉대를 쌓은 뒤 성벽을 두르지 않고 그 부근에 성벽의 축조기법이 흡사한 산성들이 배치되어 있다. 유구의 속성이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인 것은 전북가야 진출시기의 선후관계와 함께 본래 봉수의 기능과 역할이 다른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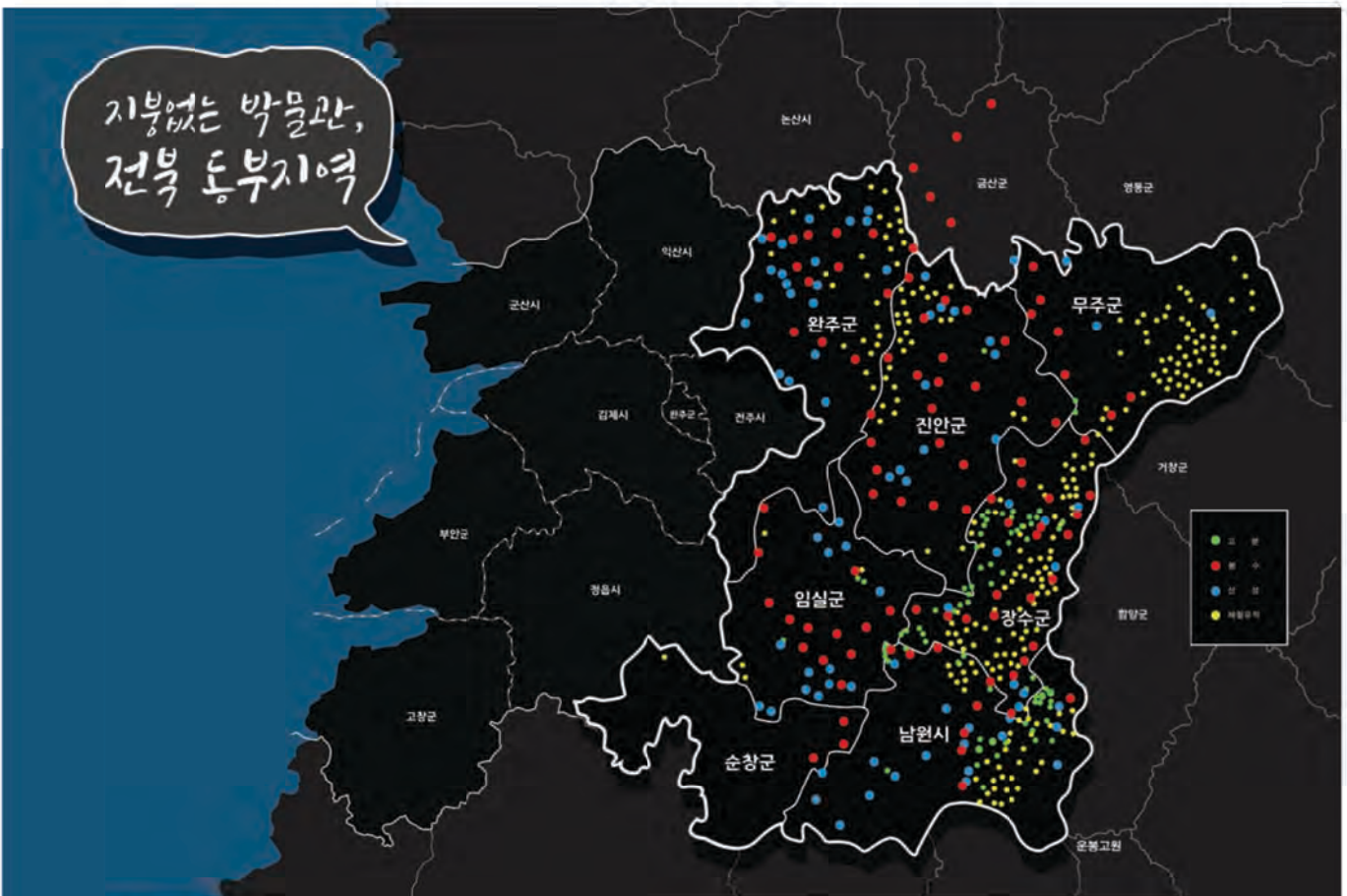
전북가야 복원을 위한 큰 도전

전라북도, 전북가야의 복원에 총력, 학술조사 등 추진
문화재 지정과 세계유산 등재, 정비복원 및 관광자원

2019년 전북가야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학술조사가 본격 추진되고 있다. 가야사 국정과제의 성공을 위해 전라북도에서 가야 관련 예산을 넉넉하게 편성했고, 남원시와 장수군 등 7개 시군에서도 많은 예산을 더했다. 봉수왕국 전북가야의 올곧은 복원을 위해 분묘유적, 통신유적 등을 대상으로 학술조사가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주관으로 봉수와 제철유적을 대상으로 정밀 지표조사를 실시한 뒤 향후 보존대책 및 활용방안도 마련됐다. 영호남의 화합과 화해를 위한 전라북도와 7개 시군의 도전에 힘찬 박수를 보내고 전북가야의 복원을 위해 시군별로 기획된 국정과제의 핵심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2018년 남원시는 운봉고원 기문국의 지배자가 잠든 남원 유곡리·두락리 고분군을 국가 사적으로 지정 받은 뒤 바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대상 목록에도 이름을 올려 최고의 한해를 보냈다. 남원 가야고분군을 방문했던 일본, 중국학자들이 “영남에서 보지 못했던 진짜 가야를 만난 것 같다”고 할 정도로 호평을 받았다. 운봉가야의 지하궁전 가야고분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위해 본격적인 발굴조사와 유적 정비, 토지 매입 등을 왕성하게 펼치고 있다. 삼국시대 토기편이 발견된 운봉읍 옥계동 제철유적도 추가 발굴조사와 아막성으로 비정



전북 동부지역 문화유적 분포도



2017년 11월 25일 봉수왕국 전북가야 제막식 행사 광경

된 남원 성리산성 시굴조사도 마무리됐다.

전북가야의 또 다른 정치 중심지 장수군은 장수가야 완성의 해로 삼았다. 장수가야의 수장층이 잠든 장수읍 동촌리 고분군이 사적 심의를 통과했으며, 10월 경 장수 백화산 고분군은 국가 사적 심의를 기다리고 있고, 장수가야의 백성들 무덤으로 알려진 천천면 삼고리 고분군도 학술발굴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철의 생산부터 가공까지의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준 장계면 대적골 제철유적은 가야와의 관련성 입증에 도전한다. 장수 삼봉리 산성·봉수에서 가야토기편이 나왔고, 봉수의 구조가 온전하게 보존된 할미봉 봉수와 침령산성 발굴조사에서도 큰 성과가 기대된다.

1972년 임실을 금성리에서 전북가야의 존재를 처음으로 세상에 알린 임실군이다. 진안고원 내 장계분지에서 출발하는 한 갈래의 봉수로가 임실군을 가로질러 호남정맥에서 멈춘다. 2018년 임실을 봉화산 봉수 시굴조사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최근에 끝난 발굴조사에서 봉수와 관련된 대규모 판축시설이 확인되어 큰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 하반기에는 호남정맥 경각산·치마산 봉수의 성격을 밝히기 위한 시(발)굴조사가 계획되어 있다. 임실군 봉수의 구조와 그 의미가 상세하게 파악된다면, 전북가야가 봉수왕국으로 더 자리매길 될

것이다. 섬진강유역 교통망의 허브로 밝혀진 임실 월평리 산성도 3차 발굴조사가 계속된다.

전북가야가 백제와 국경을 맞댄 원주군에서도 봉수의 역사적 배경을 밝히기 위한 학술조사가 개시된다. 2018년 원주군 동북부에서 그 존재를 드러낸 10여 개소의 봉수 중 봉대가 온전하게 보존된 각시봉·불명산·운암산 봉수와 봉수시설이 발견된 용복리 산성을 대상으로 측량조사가 추진된다. 2019년 초 봉실산성·종리산성에서 추정 봉수시설이 발견되어 적지 않은 관심을 끌었고, 현지조사 때 6세기를 전후한 삼국시대 토기편이 채집됐다. 경북 고령군에서는 불명산 봉수를 대가야 테마파크 안에다 그대로 재현됐다. 2019년 8월 전라북도 문화재위원회 회의에서 완주 탄현 봉수가 문화재 심의를 통과했다.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가 완주군 삼례읍에 보급자리를 마련하고 학술활동을 시작했다.

진안군도 전북가야의 복원을 위해 왕성하게 군정을 펼친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동광석을 녹여 구리를 생산했던 동향면 대량리 제동유적이 발굴조사를 통해 그 전모가 밝혀질 것 같다. 전북 동부지역에서 그 존재를 드러낸 100여 개소의 봉수 중 유일하게 정비 복원된 주천면 태봉 봉수도 발굴조사를 기다린다. 2019년 섬진강유역에서 그 존재를 드러낸 마령면



전북가야 고차답사 기념사진

계서리 서비산 봉수는 자연 암반층을 평탄하게 다듬고 불을 피우던 장구모양의 구멍을 뚫어 놓아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 올해 진안 봉우재 봉수 등 10여 개소의 봉수 더 발견되어 학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2019년 9월 2일 진안 도통리 청자 요지가 국가 사적 제551호로 지정됐다.

전북가야가 신라와 치열하게 힘을 겨뤘던 무주군이다. 2018년 무주를 대차리에서 신라토기가 다량으로 쏟아져 백제가 475년 공주로 도읍을 옮긴 뒤 정치적인 불안에 빠지자, 이를 틈타 신라가 대규모 철산지 무주 일대로 진출했던 것으로 밝

혀졌다. 당시 백제와 신라는 나제동맹을 맺고 있었지만 신라는 백제의 국난을 함께 나누지 않고 백두대간 덕산재를 넘어 금강까지 서진西進을 단행했다. 2019년 덕유산 국립공원 내 설천면 삼공리 제철유적과 봉화산 봉수 발굴조사가 착수된다. 올해 덕유산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정밀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초대형 제철유적의 존재를 세상에 알렸다.

전북가야의 서쪽 경계 순창군에서도 가야를 만날 수 있다. 동계면 신흥리 합미성에서 원형의 봉수시설이 발견됐는데, 지금까지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특이한 구조물이다. 최근에는



전북가야 조사·연구 및 전시를 위한 업무 협약식(MOU)



봉수왕국 전복가야 기념비를 찾은 군산 시민들

적성면 석산리 강정마을 서북쪽 생이봉에서 함미성과 동일한 봉수시설이 발견되어 학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삼국시대 봉수시설로 추정되는 원형 혹은 장방형의 석축시설이 발굴조사를 통해 그 정체가 확인된다면 전복가야의 복원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순창군에서 그 존재를 드러낸 봉수들은 대부분 거칠고 조잡하게 쌓아 두드러진 특징을 보인다.

지금까지 가야사의 연구가 사후세계를 상징하는 고분군 중심으로만 진행됐다. 2019년 전북에서는 가야 고총에서 입증된 전복가야의 지역성과 역동성에 바탕을 두고 현실세계를 대변해 주는 산성 및 봉수를 가야사의 복원에 초대했다. 전북도민들이 가야사의 숲을 조성하겠다는 진중한 각오와 열망이 담겨있다.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남원시, 장수군 등 7개 시군에서 가야사 국정과제의 성공을 위해 추진하려는 다양한 학술조사를 통해 봉수왕국 전복가야의 실체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기원해 본다.

가야사 국정과제에 전북 도민들을 초대하기 위해 전복가야 축제 한마당이 펼쳐질 예정이다. 올해 가을 남원시 주관으로 남원 유곡리·두락리 36호분에서 고유제를 시작으로 봉화산 봉수 재현, 전복가야 사진전 및 드론전, 7개 시군을 하나로 묶는 전복가야답사 등 풍부하고 알찬 행사가 열린다. 무엇보다 봉수왕국 전복가야의 정체성을 고증하기 위해 전북사학회 주관으로 학술대회도 큰 관심을 끈다. 2019년 가야사 국정과제의 성공을 위한 전라북도와 7개 시군의 전복가야 한마당 축제에 도민들의 큰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 전북과 경남, 경



봉수왕국 전복가야를 찾아서 리본

북이 예산을 지원하고 서울신문사가 주관하는 가야 축제 한마당이 11월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전북 동철서염^{東鐵西鹽} 큰 무대

소금과 철, 인류 역사 발전에 크게 공헌, 염철론 핵심
제나라 전횡 망명과 고조선 준왕 남래, 동철서염 구축



철기문화 바닷길로 왔다

인류의 역사 발전에서 공헌도가 가장 높은 것이 철과 소금이다. 한나라 무제가 제정하여 시행한 소금과 철의 전매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 염철론(鹽鐵論)으로 전북은 염철론의 큰 무대였다. 전북 서부지역에서 소금과 동부지역에서 철이 생산됐는데, 여기에 근거를 두고 전북을 동철서염(東鐵西鹽)으로 표명하려고 한다. 선사시대부터 줄곧 전북에서 생산된 소금과 철이 초기철기시대 전파된 철기문화가 전북의 토착세력집단이 발전하는데 크게 공헌을 했다는 것이 그 핵심 내용이다.

기원전 202년 제나라 전횡이 어청도로 망명해 왔는데, 그를 모신 사당 치동묘(淸東廟)가 군산 어청도에 있다. 여기서 차동



금강 하구 오성산과 나리포 일원 항공사진

모는 제나라 도읍 임치 동쪽에 있는 사당이라는 뜻이다. 충남 보령 외연도에도 전횡장군 사당이 있는데, 해마다 음력 2월 14일 외연도 당제에서 풍어의 신으로 전횡을 제사지내고 있다. 그리고 새만금 방조제가 시작되는 비응도에도 전횡을 모신 사당이 있었는데, 전횡이 쓴 것으로 전하는 칼이 사당에 모셔져 있었다고 한다. 안타깝게 사당도 헐리고 칼도 사라졌다.

중국 산둥반도에 기반을 둔 제나라는 발해만의 소금생산과 태항산의 철산지에 근거를 두고 동염서철(東鹽西鐵)로 상징된

다. 1975년 전북혁신도시 내 완주 상림리에서 나온 26점의 중국식 도씨검이 교역보다 망명객에 의해 유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물의 속성이 산둥성 출토품과 가장 흡사하다. 중국식 청동검은 제나라 전횡이 군산 어청도·비응도를 거쳐 전북혁신도시에 정착했음을 뒷받침해 주는 고고학적 증거물이다. 춘추 오패이자 전국 칠웅 중 최강국 제나라의 동염서철이 전북과 처음 인연을 맺은 것이다.

제나라 전횡이 망명하고 8년 뒤 또 한 사람의 왕이 군산으



전북 서해안 옛 해안선과 간척



고조선 준왕 도착지로 알려진 나리포와 공주산

로 왔다. 기원전 194년 고조선 마지막 왕 준왕이 위만에게 나라를 빼앗긴 뒤 배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와 새로운 땅을 찾았는데, 당시 준왕이 상륙한 곳이 나리포라고 한다. 금강 하구에서 최대 규모의 항구로 알려진 나리포는 그 부근에 익산 입점리 고분군이 위치해 있다.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공주산을 중심으로 아래산성과 도청산성, 관원산성에 준왕과 관련된 이야기가 풍부하다. 고조선 준왕의 도착과 그 역사성을 유적으로 말해준다.

예부터 전하는 이야기에 의하면, 준왕은 산을 넘어 익산에 가서 나라를 세웠는데, 당시 준왕의 딸 공주가 머물렀던 산을 공주산이라고 불렀고, 준왕이 공주를 데리러 왔다고 해서 공주산 앞쪽 산을 아래산이라고 부른다. 금강 하구 나리포로 내려 온 준왕은 익산시 일대에 최고의 청동기문화를 남겼다. 그렇다면 만경강을 중심으로 전황이 전북혁신도시에 준왕이 익산시 일대에 정착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일본에서 농경의 신과 학문의 신, 의학의 신으로 추앙받고 있는 인물이 제나라 방사 서복이다. 진시황의 명령을 받고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새만금, 제주도를 거쳐 일본에 정착했다. 진나라 서복의 불로초탐사, 제나라 전황의 망명, 고조선 멸망 이후 준왕의 남래로 당시에 최고의 선진문물이 바닷길을 통해 곧장 만경강유역으로 전파된 것 같다. 그리하여 전북의 철기문화 시작이 경기도, 충청도보다 상당히 앞선다.

초기철기시대 전북혁신도시가 테크노밸리로 급성장하면서

급기야 만경강유역이 새로운 초기철기문화의 거점지역으로 급부상한다. 만경강유역이 당시 테크노밸리로 융성할 수 있었던 것은 제나라 전황의 망명, 고조선 준왕의 남래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리하여 만경강유역에서 거친무늬거울이 잔무늬거울로 바뀌었고, 전북혁신도시에 만든 잔무늬거울이 전국에 널리 유통된 것으로 밝혀졌다. 어떻게 보면 전북혁신도시는 세문경의 고향이다.

우리나라에서 철기문화의 전래와 바닷길 발달로 갑자기 패총의 규모가 커진다. 고고학에서는 패총을 해양활동의 백미로 평가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학계에 보고된 600여 개소의 패총 중 200여 개소가 새만금 일대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군산 개사동 패총은 그 규모가 100m 이상으로 우리나라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일찍부터 거미줄처럼 잘 갖춰진 교역 네트워크를 토대로 새만금의 해양문화가 융성했던 해양경제의 메카였음이 입증된 것이다. 우리들이 간과해 왔던 전북의 바다 이야기이다.

마한의 거점세력은 해양세력으로 알려졌는데, 우리나라에서 마한의 패총과 말무덤이 가장 많은 곳이 새만금이다. 말무덤은 말이 마(馬)의 뜻으로 보고, 말은 머리 혹은 크다 뜻으로 우두머리에게 붙여진 관형사로 그 피장자는 마한의 지배층으로 밝혀졌다. 흔히 말사슴을 왕사슴, 말매미를 왕매미, 말벌을 왕벌로 부르는 것과 똑같다. 한마디로 말무덤은 마한의 왕무덤이다. 새만금의 해양문화가 융성할 수 있었던 것은 소금의 생



제나라 전황을 모신 군산 어청도 치동묘



군산 어청도로 망명해 왔다고 전하는 제나라 전황

산과 유통일 것이다. 당시의 소금 생산은 자염이 아닌 토판 천일염으로 추측된다.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전북의 서해안은 토판 천일염과 관련하여 최적의 자연조건을 갖춘 곳이었다.

이제까지 큰 지지를 받았던 철기문화가 육로(陸路)보다 바닷길로 전북으로 곧바로 전래됐음을 방증해 준다. 전북혁신도시를 당시 첨단산업단지로 이끈 선진세력이 100년 뒤 이동을 감행했는데, 지리산 달궁계곡과 장수 남양리에서 그 단서가 포착됐다. 아이러니하게도 두 지역 모두 최대 규모의 철광석 산지이다. 초기철기시대 때 전북혁신도시 등 만경강유역에 지역적인 기반을 둔 선진세력에 의해 전북에서 동철서염(東鐵西鹽)의 생산과 유통체계가 비로소 굳건히 구축된 것이다.

2017년 전북 동부지역에 기반을 두고 가야 왕국으로까지 발전했던 모든 가야세력을 하나로 묶어 전북가야라고 이름을 붙였다. 전북가야는 가야의 지배자 무덤으로 알려진 가야 중대형 고총 420여 기, 철광석을 녹여 철을 생산하던 제철유적 250여 개소, 횃불과 연기로 신호를 주고받던 100여 개소의 봉수로 상징된다. 백두대간 산줄기를 중심으로 동쪽 운봉고원에 운봉가야와 서쪽 진안고원에 장수가야가 있는데, 모두 전북가야의 정치 중심지이다. 지금처럼 옛날에도 정치의 파급력이 대단했다.

우리나라에서 철산지는 대부분 거점지역이자 중앙으로 발돋움했고, 삼국시대에 이르러서는 고대국가를 출현시켰다. 전북가야와 백제의 역동적인 문물교류도 철의 생산과 유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운봉고원과 진안고원에서 가야와 백제, 신라가 국운을 걸고 제철유적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각축전을 펼쳐 삼국의 유적과 유물이 함께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철유적을 대상으로 발굴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학계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백두대간 동쪽 운봉고원에 큰 관심을 두었던 근초고왕과

무령왕, 무왕은 당시에 백제를 중흥으로 이끌었다. 무엇보다 무왕 때 익산이 백제의 거점지역으로 융성할 수 있었던 것은 대규모 철산지인 운봉고원의 탈환이 주된 배경으로 작용했다. 운봉고원은 철의 생산부터 주조기술까지 집약된 철의 테크노벨리였다. 실상사 철조여래좌상은 운봉고원의 철기문화와 유학승의 신앙심이 하나로 응축되어 탄생시킨 최고의 걸작품이다. 2017년 편문화상 승탑이 후백제 문화유산 중 처음으로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247호로 지정됐는데, 후백제 연호 정개(正開)가 승탑에 전해진다.

전북 동부지역에서 250여 개소의 제철유적이 그 존재를 드러냈다.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운봉고원과 진안고원이 여기에 해당된다. 고고학자들의 열정과 도전으로 운봉고원에서 40여 개소와 장수군에서 70여 개소의 제철유적이 발견되어 학계의 커다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동시에 장수가야와 운봉가야는 근초고왕의 남정 이후 가야문화를 받아들여 가야 왕국으로까지 발전했다는 점에서 서로 공통성을 보였다. 백두대간 속 가야 왕국들로 유적과 유물로 서로 돈독한 우호관계도 증명됐다.

초기철기시대부터 후백제까지 1000년 동안 철이 생산되어 전북을 동철서염으로 구축한 뒤 전북을 염철론의 큰 무대로 이끌었다. 전북 동부지역 제철유적 250여 개소와 서부지역 패총 200여 개소가 이를 방증한다. 삼국시대 백제와 전북가야가 동철서염의 기틀을 처음 마련했고, 후백제 견훤왕이 국가시스템으로 완성했다. 전북 동부지역에서는 전북가야와 후백제를 함께 만날 수 있는데, 전북가야가 처음 터를 닦고 400년 뒤 후백제가 다시 국력을 쏟았기 때문이다. 전북의 자긍심이자 역동성의 근원인 전북의 동철서염에 큰 관심을 당부 드린다. 동시에 전북이 염철론의 큰 무대였다는 역사의 실체를 꼭 기억했으면 한다.

2200년 전 한반도 테크노밸리, 전북혁신도시

전북혁신도시, 2200년 전 초기철기시대 신도시 조성
제나라 전횡 망명, 고조선 준왕 남래, 철기문화 전파

혁신도시란 지방으로 이전되는 공공기관과 지역의 산·학·연·관이 상호 유기적인 협력과 네트워킹을 통해 혁신을 창출·확산시킴으로써 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지리적 공간을

말한다. 전주시 혁신동,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반교리 일원에 조성된 전북혁신도시는 2007년 조성공사를 착수해 2016년 완공됐다. 호남문화재연구원을 비롯해 많은 발굴기관들이 발



전북혁신도시 항공사진



터키 히타이트에서 전북혁신도시까지 이어진 아이언로드



굴조사에 참여해 큰 성과를 거두었다.

2002년 완주 갈동유적을 시작으로 2011년 12월 황방산 북쪽 기슭 하단부에 자리한 만성동에서 최고급 청동유물이 출토됐다. 2011년 12월 세문경과 동과가 발견매장문화재로 신고되어, 그해 전주문화유산연구원 주관으로 실시된 수습조사에서 세형동검·동사 등 청동유물과 4점의 관옥이 더 출토됐다. 황방산과 인접한 전북혁신도시 내 구제발굴에서 초기철기시대 토광묘가 조사된 분묘유적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완주 갈동유적은 호남문화재연구원에 의해 2003년, 2006년 두 차례의 구제발굴에서 초기철기시대 17기의 토광묘가 조사됐다. 토광묘는 구릉지 남쪽 기슭에 군집을 이루거나 단독으로 분포되었고, 토광묘 안에서는 세형동검의 용범 1조를 비롯해 청동갈·청동거울·청동화살촉·청동창·철낫·철도끼·옥·점토대토기·흑도장경호 등 많은 유물이 나왔다. 세형동검의 용범을 비롯해 다양한 청동유물이 출토되어, 이 일대가 청동기 제작의 중심지였음을 입증해 주었다. 기원전 2세기 전후에 조성된 분묘유적으로 우리나라 초기철기시대의 시대상과 사회상을 연구하는 데 값진 고고학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전북혁신도시 내 원장동유적은 완주 갈동유적에서 남쪽으로 600m 가량 떨어진 곳에 있다. 모두 5기의 초기철기시대 토광묘가 해발 40m 구릉지 남서쪽 기슭에서 조사됐으며, 묘광은 길이 217~262cm, 너비 79~115cm이다.

유물은 1호에서 세형동검 5점과 세문경 2점을 비롯해 동과·동부·검파두식 3점·관옥 17점·환옥 3점이 출토됐다. 그리고 2호에서 세형동검과 흑도장경호, 3호에서 동검과 검파두식·흑도장경호·석촉, 16호에서 동검과 동사·흑도장경



전북혁신도시내 완주 상림리 출토 중국식 동검

호가 나왔다. 특히 구릉지 정상부에 입지를 둔 1호 토광묘는 만경강유역에서 부장 유물이 가장 풍부하게 출토되어 비대한 관심을 끌었다.

완주 덕동에서 남서쪽으로 400m 떨어진 곳에 덕동유적이 있다. 2002년 지표조사에서 동착 용범편이 수습되어 주목을 받았으며, D구역에서 3기와 F구역에서 2기, G구역에서 2기 등 모두 7기의 토광묘가 조사됐다. 묘광의 규모는 길이 165~264cm, 너비 61~105cm 내외로 유구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

유물은 D-1호에서 세문경편과 동검편·동사편을 비롯해 점토대토기와 흑도소호·석촉, D-2호에서 동부와 동사편·동착편·대부호 등이 출토됐다. D-3호와 F-1호는 토기류만 부장됐고, F-2호에서 동과와 검파두식이 나왔다. 그리고 G-1호에서 동검·동부·흑도장경호, G-2호에서 동검편과 조문경편이 출토됐다. 전북혁신도시 내 초기철기시대 분묘유적 가운데 유일하게 조문경이 출토되어 그 조성시기가 가장 올라간다.

전북혁신도시 내 초기철기시대 분묘유적 중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것은 신평유적이다. 모악산에서 북쪽으로 뻗은 산자락 말단부로 해발 35m 내외의 구릉지에 자리한다. 우리나라 최대 규모 초기철기시대 분묘유적으로 구석기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다양한 유구가 조사됐다.



전북혁신도시에서 나온 잔무늬거울

이 유적은 가지구와 나지구로 구분되며, 가지구에서 57기, 나지구에서 23기 모두 80기의 초기철기시대 토광묘가 확인됐다. 토광묘는 구릉지의 남서쪽 경사면과 일치하게 장축 방향을 두었다. 가 지구는 10여 기의 토광묘가 5개의 구역에 조성되어 있는데, 묘광의 규모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면서 커지고 철기유물의 양도 많아져 얼마간 시기적인 차이를 두고 조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묘광은 그 평면형태가 장방형 혹은 장타원형으로 길이 112~383cm로 매우 다양하다. 내부구조는 아무런 시설 없이 시신을 안치한 순수토광묘의 빈도수가 높고 낮은 단계로 가면서 목관묘의 사용이 증가한다. 특히 54호 토광묘는 길이 383cm로 만경강유역에서 조사된 토광묘 중 가장 대형이며, 유물은 토기류와 동사·철부·철도자 외에 간두령 1쌍이 나왔다.

우리나라의 10여 곳에서 간두령이 출토된 사례가 있는데, 완주 신평 54호 토광묘는 그 출토 위치가 파악된 유일한 유구로 학술적인 가치가 높다. 간두령은 절개구와 문양을 근거로 기하학문양이 표현된 함평 초포리나 전 논산 출토품보다 늦고 전 덕산 출토품과 경주 죽동리 출토품의 중간단계인 기원전 1세기 전반으로 비정됐다.

유물은 토기류와 청동기류·철기류·유리장신구류가 더 있다. 토기류는 원형점토대토기와 흑도장경호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여기에 송국리형토기·발형토기·원통형토기·대부잔도 포함되어 있다. 청동기류는 세형동검과 세문경·동과·동부·동사 등이 있다. 동경은 피장자의 머리·가슴·허리·발치 등 다양한 곳에 부장됐으며, 깨뜨린 뒤 피장자 머리 옆이나 피장자 상면에 흘뿌리거나 세우거나 혹은 눕힌 상태로 출토됐다.

철기류는 철부와 철착·환두소도·철도자·철촉 등이 있으며, 유물의 종류는 주조품이 주종을 이루고 일부 단조품도 포함되어 있다. 유리목걸이를 중심으로 환형유리 등 다양한 유리 제작이 입증됐다. 이 유적은 기원전 3세기 후엽에서 기원전 1세기 경에 조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전주 중인동 5호 토광묘와 중화산동 2호 토광묘에서 세형동검편을 비롯해 중인동 하봉유적 1호 토광묘에서 동부가 출토됐다. 황방산 북서쪽 전북혁신도시 내 초기철기시대 분묘유적에서 17점의 청동거울이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출토량이 가장 많다. 전주와 익산, 완주 등 만경강유역이 당시 테크노밸리로 급성장한 것은 군산을 중심으로 한 새만금이 선사시대 이래로 구축된 해상교통로와 관련이 깊다.

2200년 전 전북혁신도시는 신도시였다. 당시 전북혁신도시



전북 혁신도시 내 완주 갈동 출토 세형동검 거꾸집

를 신도시로 조성한 주인공은 제나라 전횡과 고조선 마지막 왕 준왕이 가장 유력하다. 서해의 바닷길과 만경강 내륙수로로 새로운 철기문화가 전북혁신도시에 유입된 것으로 추측된다. 선사시대부터 줄곧 새만금을 중심으로 거미줄처럼 잘 구축된 교역망으로 선진문물이 전북과 첫 인연을 맺은 것이다. 전북이 동철서염(東鐵西鹽)의 서막을 열었다.

초기철기시대 철기문화가 유입되는 과정에 만경강유역이 중국 산둥성 혹은 서북한 지역과의 관련성이 증명됐다. 제나라 전횡의 망명과 고조선 유이민의 남하로 청동기시대 지식묘 사회가 급격히 해체되면서 새로운 질서의 재편과정은 마한의 형성으로 이어진다. 전북혁신도시를 한반도 테크노밸리로 조성한 선진세력은 한 세기 뒤 완주 상운리로 중심지를 옮기고 진안고원과 운봉고원 내 지리산 달궁계곡을 아우르는 철의 생산과 유통 시스템을 견고하게 구축했다.

지리산 달궁계곡 제철유적이다

기원전 84년 마한 왕 피난, 71년 동안 머무
하점골 등 10여 개소 제철유적 밀집, 철산지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운봉고원의 철광석이 서로 만나 새롭게 탄생된 것이 운봉고원의 제철유적이다. 조선시대 십승지지이자 신선의 땅으로 널리 회자되고 있는 운봉고원은 한마디로 철광석의 산지이다. 바꾸어 말하면 백두대간 속 지붕 없는 철

광석 박물관이다. 운봉고원의 철광석은 니켈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철광석 중 최상급으로 평가받는다.

최근까지 진행된 지표조사를 통해 40여 개소의 제철유적이 운봉고원에 밀집 분포된 것으로 밝혀졌다. 백두대간 노고단에



운봉고원 제철유적의 보고 지리산 달궁계곡 항공사진



남원 하점골 제철유적 배소된 철광석

서 삼봉산까지 그 분포 범위가 25km에 달한다. 지금도 운봉고원과 그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제철유적을 찾고 알리는 지표조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운봉고원 제철유적의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 지리산 달궁계곡에서 제철유적이 그 존재를 세상에 알렸다. 그해 봄 가뭄이 심해 달궁계곡 철광석이 뿔어진 진한 황갈색의 녹물이 결정적인 실마리를 제공해 주었다. 오래 전부터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겨 제철유적을 찾고 알리는데 고고학자들의 끈기와 열정이 요구됐다. 전북 남원시 산내면 덕동리를 중심으로

남쪽 하점골과 서남쪽 봉산골, 서쪽 심원계곡, 북쪽 언양골, 동북쪽 외앗골이 여기에 해당된다.

남원 하점골 제철유적은 철광석의 채광부터 솥을 가지고 철광석을 환원시켜 철을 추출해 내는 제철공정을 한 자리에서 살필 수 있다. 이제 막 문을 연 철의 유적공원을 연상시킬 정도로 제철유적의 보존상태가 거의 완벽에 가까워 대자연의 원시림을 방불케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의 발굴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아 무척 아쉽다.

백두대간 고리봉에서 세걸산을 지나 덕두산까지 이어진 산줄리 양쪽에도 10여 개소의 제철유적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남원시 운봉읍에서 지방도를 따라 정령치 방면으로 가면 선유폭포에 도달하는데, 그 부근에 슬래그(쇠똥)가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다. 남원시 주천면 고기리 제철유적으로 쇠똥의 분포 범위가 1.5km 내외로 운봉고원 내 제철유적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세걸산 서쪽 금새암골에도 제철유적이 있는데, 수철리라는 마을 지명도 제철유적에서 유래했다. 이 마을 입구 논에 주쇠똥이 있는데, 이곳에서 철이 다시 가공됐음을 말해준다. 지명은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데, 지명으로도 제철유적의 존재를 알렸다. 운봉고원 일대에 40여 개소의 제철유적을 남긴 철기문화의 출발지는 어디였을까?

기원전 84년 마한의 왕이 전쟁을 피해 피난길에 올랐다. 당시 마한의 왕이 피난지로 삼은 곳은 첩첩산중으로 유명한 지리산국립공원 내 달궁계곡이다. 여름철 피서지로 유명한 지리산 뱀사골계곡 서쪽에 달궁계곡 일대가 여기에 해당된다. 지리산 달궁계곡의 달궁터와 백두대간의 정령치·성삼재, 팔랑치가 마한의 왕과 관련된 지명들이다.





지리산 달궁계곡 내 하점골 제철유적

지리산 달궁계곡 서쪽 관문 성삼재는 성이 다른 세 사람의 장수들이 지킨 고개라는 뜻이다. 달궁계곡 서북쪽 팔랑치는 8명의 젊은 남자들이 달궁계곡 달궁터로 향하던 고개를 지킨대에서 유래된 지명이다. 그리하여 마한 왕의 전설이 깃든 지리산 달궁계곡의 ‘궁’ 자는 경북궁처럼 집 궁(宮)자를 쓴다. 엄연히 풍수지리에 근거를 둔 활 궁(弓)자와 그 위상과 의미가 다르다.

청허당 서산대사가 쓴 황령기의 내용은 구체적이고 분명하다. 중국 한나라 때인 기원전 84년 마한의 왕이 진한의 침공을 받아 지리산으로 피난하여 도성을 쌓고 그 도성을 71년 동안 유지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황, 정 두 장수들로 하여금 성 쌓는 일을 감독하고 고개를 지키도록 하여 고개의 이름도 두 장수의 성을 쫓아 황령(黃嶺), 정령(鄭嶺)이라 불렀다는 것이다.

1987년 지표조사를 통해 마한의 왕과 관련된 달궁터와 정장군이 성을 쌓고 지킨 정령도 그 위치가 파악됐다. 19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달궁터는 밭으로 개간된 것을 제외하면 건물지로 추정되는 유적과 유구가 잘 보존되어 있었다. 지금은 지리산국립공원 내 달궁계곡 주차장을 만들면서 달궁터의 대부분을 내 주고 일부 남은 왕궁터도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안타깝다.

최근에는 정령치 동쪽 기슭 중단부에 자리한 절골이 달궁터



남원 하점골 제철유적 내 파쇄된 철광석

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리산 달궁계곡에서 가장 넓은 평탄대지가 펼쳐진 절골은 풍수지리에서 최고의 자연환경을 자랑한다. 아직까지 지리산 달궁계곡의 달궁터를 제외하면 마한의 왕궁터가 확인된 곳은 없다. 그만큼 달궁터는 그 자체만으로도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관심이 절실하다.

‘삼국지’ 위지 동이전 한조에는 54개의 소국이 마한에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마한의 소국들은 대체로 시·군 단

위마다 하나씩 자리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껏 마한 왕의 달궁터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성격과 조성연대가 고고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어느 지역에 기반을 두고 발전했던 마한의 왕국과 관련이 있는지 아직은 그 실체가 파악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철기시대 때 한반도 테크노밸리였던 전북혁신도시가 그 출발지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1975년 만경강유역 전북혁신도시 내 완주 상림리에서 나온 26점의 중국식 동검을 남긴 제나라 전횡의 망명세력과 연계성이 가장 높다. 완주 상림리 중국식 동검은 망명에 성공한 전횡 세력이 토착화하기 이전에 제사를 지낸 뒤 매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전북 동부지역 가야 고총이 마한 분구묘에서 유래된 결정적인 본바탕이 됐다.

백두대간의 정령치에서 마한 왕의 명령을 받고 정장군이 쌓은 성터가 발견됐다. 남원시 운봉읍과 산내면 달궁계곡을 연결해 주는 큰 관문이 정령치이다. 최근에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들로 북적대는 정령치 정상부에 성벽의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다. 현재 정령치 서쪽 기슭에는 흙과 돌을 가지고 골짜기를 막은 토석혼축성과 고리봉으로 오르는 서쪽 기슭에 돌만을 가지고 쌓은 석성이 있다. 석성의 성벽은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할석만을 가지고 수직으로 쌓았는데, 성벽의 축성방법이 매우

조잡하여 삼국시대의 석성과 그 축조기법이 확연히 다르다.

정장군이 쌓은 정령치의 석성은 달궁계곡의 달궁터를 한 바퀴 휘감아 문헌의 내용대로 달궁터를 방어할 목적으로 축조됐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그 시기가 가장 올라가는 석성일 개연성도 없지 않다. 아직은 황장군이 쌓은 황령치는 그 존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백두대간의 노고단과 삼도봉 사이 임결령이 황령치로 추정된다. 백두대간의 임결령은 달궁계곡에서 곧장 남해 바다로 나아갈 수 있는 큰 고개이다.

현지조사 때 정령치에서 성벽이 발견됨으로써 기원전 84년 마한 왕의 지리산 달궁계곡으로 피난과 7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는 구전이 유적으로 증명됐다. 마한 왕의 달궁터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제철유적이다. 마한의 왕이 지리산 달궁계곡으로 피난을 떠나기 이전 철기문화가 전북혁신도시에 전래되어, 만경강유역에서도 철을 생산하고 있었다.

전북혁신도시 철기문화의 시작과 관련하여 학자에 따라 얼마간 견해를 달리하고 있지만 대체로 기원전 3세기를 전후한 시기로 편년되고 있다. 만경강유역으로 철기문화의 전파는 제나라 전횡의 망명, 고조선 준왕의 남래가 역사적 배경으로 추정된다. 초기철기시대 전북혁신도시를 당대 최고의 테크노밸리로 만든 선진세력집단이 한 세기 뒤 철광석을 찾아 지리산 달궁계곡 혹은 장수 남양리로 이동했던 것 같다.



지리산 달궁계곡 절터 내 추정 달궁 터

운봉고원, 철의 생산과 유통 메카

전북혁신도시 내 선진세력 지리산 달궁계곡 이동
운봉고원 철기문화 융성, 철의 왕국 기문국 존재

전북혁신도시는 경기도, 충청도보다 더 이른 시기에 철기문화가 전래됐다. 한 세기 동안 전북혁신도시에 머문 선진세력은 지리산 달궁계곡으로 이동했던 것 같다. 기원전 84년 마한왕이 전쟁이 일어나자 지리산 달궁계곡으로 피난을 갔다는 이

이야기가 전해진다. 지리산 달궁계곡에서 70년 이상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운봉고원의 제철유적이 처음 개발됐을 개연성이 높다.

372년 백제 근초고왕이 곡나철산에서 생산된 철을 가지고



남원 월산리 M5호분 출토 복발형 투구



남원 월산리 M1-A호 출토 투구와 경갑, 찰갑

칼, 거울 등 여러 가지 귀한 보물을 만들어 왜의 조정에게 보냈다. 일제강점기부터 곡나의 지명 음상사에 근거를 두고 연구가 시작됐다. 이제까지 곡나철산의 위치 비정과 관련해서 황해도 곡산설·안협설, 충주설, 여주설, 보은설 등이 있다. 전남 곡성설이 발표된 뒤 역사학계의 적지 않은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그런데 전남 곡성군에서는 여전히 제철유적이 학계에 보고되지 않고 있다. 다만 운봉고원에서 생산된 철이 섬진강 내륙 수로로 유통됐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 운봉고원에서 시작된 여러 갈래의 교통로가 전남 곡성군 고달면 대사리에서 하나로 합쳐진다. 그리고 섬진강 본류에 요천·수지천·곡성천 등 여러 갈래의 지류들이 합류하는 교통의 중심지이자 전략상 요충지로 그 부근에 남원 세전리, 곡성 대평리가 있다.

여태까지는 지명의 음상사와 철산지를 서로 연결시켜 그 위치를 비정했기 때문에 문헌의 핵심 내용을 충족시켜 주지 못했다. 백제의 도읍에서 7일을 가도 도달하지 못하고 강의 발원지를 거느리고 있다는 두 가지의 내용도 검토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 주는 곳이 운봉고원이



남원 월산리 M5호분 발굴 후 모습

다. 조선시대 이몽룡이 남원에 암행어사로 출도 할 때 서울에서 남원까지 7일이 소요됐고, 태조 이성계의 초상화를 전주 경기전까지 이송하는데 6일 쯤 걸렸다. 그리고 전주에서 남원까지는 하루를 더 가야한다.

운봉고원은 또한 낙동강의 지류인 남강과 섬진강 발원지를 함께 거느린다. 운봉고원을 적신 광천, 풍천이 산내면 소재지에서 만수천을 합친 뒤 임천강으로 그 이름을 바꾸고 동남쪽으로 흘러 남강으로 들어간다. 운봉고원 서남쪽 만북대 북쪽 기슭에서 섬진강 지류 요천이 발원한다. 문헌 속 두 가지의 필수조건을 모두 충족시켜 주는 곳이 대규모 철산지로 주목받기 시작한 운봉고원이다. 동시에 운봉고원의 철은 최상급으로 평가받는 니켈 철이다.

가야의 영역에서 백제토기가 가장 일찍 출현하는 곳이 운봉고원이다. 남원 월산리·행정리 수혈식 석곽묘에서 백제계 광구장경호가 출토됐는데, 그 시기는 대체로 4세기 말엽 늦은 시기로 비정됐다. 천안 용원리, 완주 상운리, 고창 신월리에서 나온 광구장경호와 유물의 속성이 상통한다. 한성기 백제의 중앙과 경남 서부지역을 잇는 간선교통로인 백두대간 치재로가 운봉고원을 통과하는 지리적인 요인과 관련이 깊다. 여기에 철의 생산과 유통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남원 월산리 MI-A호에서 나온 금은새김 고리자루 칼에서 최고의 철기제작기술도 확인됐다. 남원 월산리·유곡리·두락리 가야 고총에서 나온 복발형 투구 등 상당수 철기류가 운봉고원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최근 대규

모 철산지로 이목을 집중시킨 운봉고원이 꼭나철산과의 연관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행히 철과 철광석, 슬래그는 인간의 DNA처럼 고유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료의 과학적인 분석이 요망된다.

운봉고원의 제철유적이 언제부터 개발됐는지, 아직은 기록이 없고 발굴조사가 미진하여 그 시기를 속단할 수 없다. 삼국시대 때 철산개발은 어느 집단의 성장을 촉진하는데 경제적인 원동력의 하나로 해석되고 있다. 그리하여 가야 왕국들이 제철유적을 장악했을 때 대부분 중심세력으로 발돋움했다. 운봉고원에서 180여 기의 마한 분구묘와 가야 고총이 학계에 보고되어 철산개발로 융성했던 기문국의 존재를 알렸다.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32호분 출토 역사형 철촉



남원 월산리 M5호분 출토 철제자루술



남원 월산리 M5호분 투구 출토 상태

‘세종실록지리지’에 67개소, ‘동국여지승람’에 83개소의 철산지가 소개되어 있는데, 운봉고원의 제철유적은 한 곳도 그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삼국시대 이후 문헌에 운봉고원의 제철유적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후백제 멸망과 함께 철산 개발이 일시에 중단된 것 같다. 운봉고원 제철유적의 운영주체와 운영시기를 밝히기 위한 전라북도와 남원시의 도전에 큰 박수를 보낸다.

다른 한편으로 운봉고원 속 남원 월산리·유곡리·두락리에 가야 고층을 남긴 기문국에 의해 운봉고원의 제철유적이 보다 더 역동적으로 운영됐을 것으로 추측된다. 여기에 운봉고원을 중심으로 그물조식처럼 잘 갖춰진 교역망을 이용하여 운봉고원에서 생산된 양질의 철이 널리 유통된 것 같다. 다른 아닌 동북아를 아우르는 유물이 나왔는데, 당시에는 물물교환으로 상징되는 현물경제였다.

마한 왕부터 시작된 철 생산이 기문국의 등장과 함께 더욱 본격화되면서 운봉고원이 가야의 거점지역으로 발돋움했다. 그렇다면 백제를 비롯하여 대가야, 소가야 등의 유물이 공존하는 것은 운봉고원의 철 생산과 유통을 유물로 보여준다. 철은 그 가치가 높아 소비자가 철산지를 직접 방문해서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봉고원에서 생산된 철은 니켈이 함유된

최고의 철이다.

그렇다면 운봉고원에서 생산된 니켈 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급하기 위해 앞 다투어 최고급 위세품과 최상급 토기류를 운봉고원으로 보낸 것 같다. 미국 코넬대 이송래 교수는 운봉고원의 철을 확보하기 위해 당시 운봉고원의 기문국으로 보낸 물품 가운데 쌀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했을 거라고 당시 물물교환의 역사성을 고견으로 피력했다.

남원 월산리 M5호분에서 나온 토기류도 가야토기 박물관을 방불케 했다. 대가야·소가야 양식 토기가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기문국이 대가야, 소가야와 활발하게 교류했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기문국에서 생산된 철이 널리 유통됐음을 말해준다. 한마디로 신선의 땅으로 유명한 운봉고원은 철의 생산과 유통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준 대규모 철산지였다.

백두대간 속 운봉고원은 철산개발로 백제와 가야, 신라의 유물이 공존하는 물물교류의 허브였다. 운봉고원 내 제철유적의 밀집도가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대가야의 변방 혹은 지방으로 회자되고 있다. 운봉고원의 제철유적은 가야 왕국으로까지 발전했던 기문국의 발전상이 올곧게 담긴 블랙박스라 같은 것이다. 향후 운봉고원 내 제철유적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학계의 관심과 행정당국의 지원이 요망된다.

1982년, 남원 월산리 고분군 M1-A호 출토 최고의 하이테크 상감기술, 가야 유물 백미

백두대간 산줄기 동쪽에 위치한 운봉고원은 문화권 및 생활권이 경남 서부지역과 가깝다. 삼국시대 때 운봉고원을 중심으로 단행된 행정구역의 개편과정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남원시 운봉읍은 신라 모산현으로 경덕왕 16년(757) 운봉현으로 그 이름을 바꾼 이후에도 함양의 영현으로 편입되어 영남에 속했다. 그러다가 후백제 멸망 4년 뒤 고려 태조 23년(940) 남원과 처음 인연을 맺은 뒤 천년 이상 호남과의 만남을 지켜오고 있다. 한마디로 영호남 소통과 화합의 DNA가 살아 숨 쉬는 곳이다.

운봉고원의 운봉가야가 그 존재를 세상에 알린 것은 1982년이다. 그해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주관으로 광주와 대구를 잇는 88고속도로공사에 포함된 가야 고층에 대한 구제발굴이 이뤄졌다. 당초 백제의 대형고분일거라는 고고학자들의 예상과 달리 그 조영주체가 가야로 밝혀지면서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백두대간 동쪽 운봉고원에 지역적인 기반을 둔 가야 왕국의 존재를 처음으로 세상에 알린 역사적인 명소이다.

당시까지만 해도 남원시 아영면 월산리에는 봉분의 직경이 20m 내외되는 10여 기의 가야 고층이 무리지어 있었다. 1980년대 농지정리사업으로 3기의 고층이 유실됐지만, 1982년과 2010년 두 차례의 구제발굴을 통해 그 전모가 파악됐다. 지금은 매장공간의 내부가 노출된 M5호분과 원형의 봉분이 잘 정비 복원된 M6호분이 유적을 지키고 있다. 여기서 'M'자의 의미는 영어로 고분을 의미하는 'Mound'의 약자이다.

최근에는 남원 월산리 고분군 서쪽을 반달모양으로 휘감은 산줄기 정상부에서 10여 기의 가야 고층이 더 분포된 것으로 밝혀졌다. 가야 사람들은 현실세계의 왕궁과 사후세계의 지하궁전인 무덤을 서로 마주보게 조성했다. 아영면 월산리 고분군 인근 구지내기마을은 월산리 가야 고층에 잠든 운봉가야의



남원 월산리 고분군 전경

왕들이 살던 왕궁 터가 아니었을까? 지금은 88고속도로 개통과 확장으로 가야 사람들이 그런 유적의 경관을 느낄 수 없어 안타깝다.

1982년 88고속도로 공사 구역에 포함된 M1·2·3호분을 대상으로 구제발굴이 이뤄졌다. 당시 발굴을 이끈 주인공이 전북고고학의 초석을 다진 전영래 교수였다. 모두 3기의 가야 고층은 봉분이 서로 붙은 연접분(連接墳)으로 그 전통이 마한의 묘제에서 비롯됐다. 당시 발굴조사에서 토기류와 철기류, 장신구류 등의 가야 유물이 쏟아져 학계를 흥분시켰다. 그 중에서 월산리 M1-A호에서 나온 금은상감 환두대도는 가야 유물의 백미로 손꼽힌다.

환두대도(環頭大刀)는 손잡이 부분에 둥근 고리가 달린 긴 칼로 왕 혹은 신분이 높은 사람의 무덤에서만 출토되는 위세 품이다. 사극에서 후백제 견훤왕이 허리에 찼던 긴 칼로 고고학의 유물로 고증됐다. 남원 월산리 M1호분 주인공의 허리부분에 부장된 환두대도는 일제강점기 도굴로 몸통부분이 없어지고 손잡이 부분만 남아있었다. 유물의 보존 처리 과정을 거치면서 그 진짜 모습이 드러남으로써 역사학계를 충격 속에 빠뜨렸다.

쇠로 만든 손잡이는 쇠를 파낸 뒤 거북등무늬, 파도무늬를 은으로 앞사귀, 꽃무늬를 금으로 상감했다. 거북등무늬는 5~6세기 널리 유행했는데, 공주 무령왕릉, 고령 지산동 39호분에서도 더 나왔다. 삼국시대 상감 공예품 중 최고의 백미로 운봉가야 철의 장인집단이 만든 하이테크 기술력의 결정체이다. 운봉가야의 왕이 지하궁전에 남긴 금은상감 환두대도 손잡이는 운봉가야가 철의 테크노밸리로 융성했음을 유물로 방증해주었다.

우리나라에서 단일 지역 내 제철유적의 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이 운봉고원이다. 현재까지 학계에 보고된 운봉고원의 제철 유적이 40여 개소로 지리산 달궁계곡에서 마한 왕에 의해 처음 시작된 철산개발이 운봉가야까지 지속된 것으로 추측된다. 운봉고원의 가야 고층에서 최초로 그 존재를 드러낸 금은상감 환두대도, 철제초두를 비롯하여 모든 철기류가 나왔다.

더욱 중요한 것은 차양이 달린 복발형 투구, 역자형 비대칭 철촉 등 대부분의 철기류가 운봉고원에서 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는 점이다. 동시에 기문국 지배자의 시신을 모신 목관에 사용된 껍쇠는 기문국의 수장층 혹은 지배자와 관련이 있는 가야의 중대형 고층에서만 나왔다. 운봉고원의 기문국은 철광석을 녹여 철을 생산하던 제련기술 뿐만 아니라 무쇠를 두드려 철제품을 가공하던 주조기술까지 하나로 응축된 철의 테크노밸리였다.



남원 월산리 고분군 출토 금·은으로 새긴 고리자루 칼자루



남원 월산리 M1-A호에서 출토된 금은입사 환두대도병부편



남원 월산리 M1-A호 출토 금은상감 환두대도 손잡이편

전북가야의 보물 금동신발

2013년, 남원 유곡리·두락리 32호분 출토
가야 고총 최초, 유물로는 백제왕과 대등

조선시대 예언서 ‘정감록’에 사람이 살기 좋은 십승지지에 운봉고원이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달리 신선의 땅으로 불리는 곳으로 백두대간 산줄기가 사방을 병풍처럼 휘감고 있다. 운봉고원 동북쪽에 아영분지가 있는데, 김부식이 편찬한 ‘삼국사기’에 아영이 등장한다. 1500년 동안 운봉고원을 무대로 흥망 성쇠를 꼼꼼히 기록한 역사책과 같은 지명이 아영(阿英)이다.

백두대간 봉화산에서 한 갈래의 산줄기가 남쪽으로 위풍당당하게 이어지면서 전북과 경남의 경계를 이룬다. 마치 산의 모습이 솔개가 날아가는 형상을 닮은 연비산에서 한 갈래의 산자락이 서쪽으로 아영분지 한 복판까지 뻗어 내렸다. 어디에서 봐도 한눈에 산자락이 솟 들어와 가야 사람들이 왕의 무덤을 조성하는데 제일 좋아하던 최고의 명당이다.

남원시 인월면 유곡리와 아영면 두락리 행정 경계를 이룬 산자락에 크고 작은 산봉우리들이 무리지어 있다. 현재 소나무가 무성하게 숲을 이루고 있어 언뜻 보면 산봉우리로 보이겠지만 모두 가야 왕릉들이다. 연비산에서 서쪽으로 쭉 뻗은 산자락 정상부를 중심으로 남쪽 유곡리와 북쪽 두락리에 골고루 분포되어 남원 유곡리·두락리 고분군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남원 유곡리·두락리 고분군처럼 가야 고총이 사방에서 한눈에 보이는 산줄기 정상부에 터를 잡은 것은 왕릉의 봉분을 산봉우리처럼 더욱 크게 보이게 함으로써 무덤 주인공의 신분

이나 권위를 극대화하려는 정치적인 목적이 담겨있다. 고구려와 신라의 왕릉이 구릉지와 평지에 백제가 산봉우리 남쪽 기슭에 왕릉을 조성한 것과 확연히 다르다.

아마도 삼국과 구별되는 가야만의 독자적인 장례문화와 장례풍습을 가지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고고학적 증거이다. 남원 유곡리·두락리에는 산자락 정상부에 봉분의 직경이 30m 이상 되는 10여 기의 초대형급 가야 고총도 분포되어 운봉가야의 발전상을 잘 보여준다. 본래 봉분의 크기만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모든 가야의 영역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2013년 남원시에서 발굴비를 지원해 주어 전북대학교 박물관 주관으로 학술발굴이 이뤄졌다. 당시 산자락 정상부에 자리한 유곡리·두락리 32호분이 선정됐는데, 봉분은 그 직경이 일곱 번째 크기였다. 봉분의 정상부를 평탄하게 다듬고 발을 계단식으로 만들 정도로 그 규모가 대단히 컸다. 지금은 전북 동부지역에서 그 존재를 드러낸 420여 기의 가야 고총 중 처음으로 정비 복원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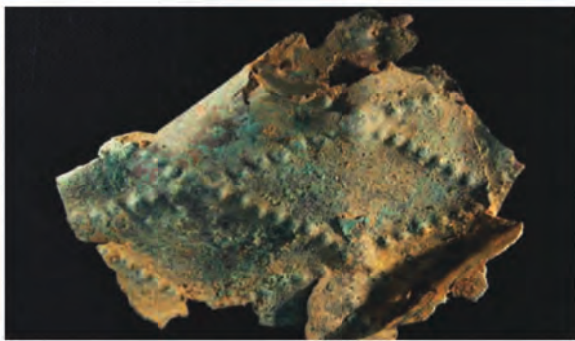
봉분 내에서 상당량의 말뼈가 수습되어 발굴단을 흥분시켰다. 1500년 전 운봉가야 사람들이 왕릉을 만들면서 정성스럽게 제사를 모시고 봉분에 넣어 둔 것으로 가야 고총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마한 사람들이 장례를 치를 때 말뼈를 사용했다는 문헌의 내용을 유적과 유물로 증명했다. 운봉가야와 장수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32호분 발굴 후 전경



금동신발이 나온 가야 고총 매장주체부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32호분 출토 금동신발편

가야 등 전북가야의 묘제가 마한에서 비롯됐음을 다시 또 확인시켰다.

봉분의 중앙에 배치된 주석곽과 그 북쪽에서 부장곽이 모습을 드러냈다. 주석곽은 무덤 주인공의 시신을 모신 매장공간으로 벽석이 무너진 것을 제외하면 그 보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했다. 부장곽은 유물을 보관하던 부속시설로 서쪽이 도굴의 피해를 입었다. 토기류와 철기류, 장신구류 등 거의 모든 가야 유물이 함께 쏟아졌는데, 최고의 걸작품은 역시 금동신발(金銅飾履)이다.

남원 유곡리·두락리 32호분 주석곽의 서쪽에 부장된 금동신발은 피장자의 발 부근에서 금동신발편·영락·영락고리·금동못이 함께 나왔다. 신발의 몸통에 두드려 낸 마름모 무늬와 얇은 쇠붙이 장식이 공주 무령왕릉과 익산 입점리 1호분, 나주 신촌리 9호분 출토품과 속성이 거의 상통한다. 백제왕이 운봉가야 왕에게 보낸 최고의 위세품(威勢品)으로 당시 백제와 운봉가야가 정략관계였음을 말해준다.

삼국시대 때 금동신발이 나온 무덤은 대부분 왕릉이나 백제 왕후제와 관련하여 최고의 권력자 혹은 지방 거점세력의 수장

층 무덤으로 지정됐다. 모든 가야 고총에서 유일하게 나온 금동신발은 운봉가야의 존재를 고고학적으로 뚜렷하게 뒷받침해 주었다. 1500년 전 백제가 철의 왕국 운봉가야를 얼마나 중시했던가를 백제왕이 보낸 금동신발이 유물로 반증해 준 것이다.

2013년 남원 유곡리·두락리 32호분에서 나온 금동신발은 백제왕이 철 산지이자 문물교류의 관문으로 당시에 번영을 누린 운봉가야의 왕에게 보낸 권력의 상징물이다. 동시에 당시 철의 생산과 유통이 담긴 물물교환의 증거물이다. 백두대간 속 운봉고원에 지역적인 기반을 두고 가야 왕국으로까지 발전했던 철의 왕국 운봉가야는 문헌 속 기문국(己汶國)이었음을 유물로 증명했다.

당시의 기록으로 알려진 중국, 일본 문헌에 자주 등장하는 가야 왕국이 기문국이다. 남원 유곡리·두락리 32호분에서 공주 무령왕릉 출토품과 흡사한 금동신발과 청동거울(獸帶鏡)이 출토됐다. 금동신발을 비롯하여 수대경, 철제초두, 계수호는 모든 가야의 영역에서 한 점씩만 나온 최고의 위세품들이다. 운봉고원의 가야 왕국 기문국의 국제성과 역동성을 다양한 유물로 방증해 왔다.

장수가야, 지붕 없는 철 박물관

모든 가야 영역에서 제철유적이 가장 많이 보고된 장수가야
장수 대적골 제철유적, 철의 생산부터 가공까지 일관제철소

2200년 전 전북혁신도시를 테크노밸리로 일군 제나라 전황의 후예들이 100년 뒤 이동했는데, 장수군 천천면 남양리에서 그 흔적이 발견됐다. 1989년 남양리 이방마을 김승남씨가 구덩이를 파던 중 청동유물과 철기유물이 함께 나왔다. 당시 발주인이 무 구덩이에서 쏟아진 유물을 발견매장문화재로 신고 함으로써 그 존재를 세상에 알렸다. 그때부터 장수군이 가야 영역에서 철기문화가 처음 시작된 곳으로 학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흔히 철의 왕국으로 회자된 가야는 기원을 전후한 시기부터 6세기 중반까지 영남 서부지역에서 호남 동부지역에 걸쳐 존재했던 왕국들의 총칭이다. 가야를 소개할 때 마다 꼭 따라 불

는 수식어가 수수께끼의 왕국 혹은 비운의 왕국이다. 그 이유는 ‘삼국사기’에서 가야의 역사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래부터 가야의 역사 기록이 없었는지, 김부식이 가야사를 외면했는지 아직은 알 수 없다.

다행히 1980년대부터 그 실체를 조금씩 드러낸 가야의 역사와 문화는 삼국과 어깨를 견줄 만큼 우수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백두대간이 줄곧 가야 영역의 서쪽 경계로 인식됐는데, 백두대간 서쪽에서 그 존재를 드러낸 유일한 가야 왕국이 철의 왕국 장수가야다. 오래전부터 가야가 철의 왕국으로 널리 회자됐는데, 모든 가야의 영역에서 철광석을 녹여 철을 생산하던 제철유적이 학계에 가장 많이 보고된 곳이 장수가야다.



장수 대적골 제철유적 발굴현장을 찾은 미국 코넬대 이송래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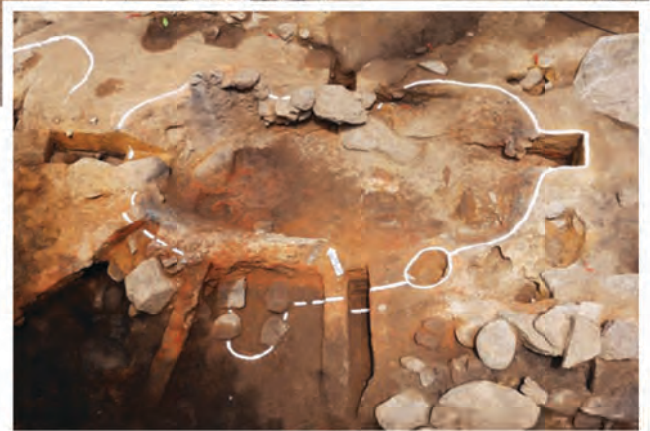


장수 대적골 제철유적 발굴 후 근경

지금까지 장수군에서 발견된 제철유적은 70여 개소에 달한다. 백두대간 서쪽 토옥동계곡과 지지계곡, 금남호남정맥의 장안산과 무들리골 등 수량이 풍부한 골짜기 내 평탄대지에 입지를 두었다. 장수군 제철유적 부근에는 철광석을 채굴하던 채석장과 숯을 굽던 숯가마도 자리한다. 한마디로 철광석의 채광부터 숯을 가지고 철광석을 환원시켜 철을 추출해 내는 제철공정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백두대간과 금남호남정맥, 금남정맥 사이 진안고원에 터전을 둔 장수가야는 4세기 후반 경 처음 등장해 가야 왕국으로 발전하다가 6세기 초엽 경 백제에 복속됐다. 금남호남정맥의 산줄기가 백제의 동쪽 진출을 막았고, 사통팔달했던 교역망의 장악과 관할, 대규모 구리와 철산개발, 한성기 백제의 간선 교통로가 통과하지 않는 지정학적인 이점도 크게 작용했다. 이를 발판으로 장수 동촌리 말무덤이 계기적인 발전과정을 거쳐 240여 기의 가야 중대형 고총이 진안고원의 장수군에만 조영됐다.

장수 동촌리 가야 고총에서 처음으로 말발굽이 출토되어, 장수가야가 철의 생산부터 단조기술까지 응축된 철의 테크노밸리였음이 입증됐다. 지금까지 가야 고총에서 한 점만 나와 장수가야가 무쇠를 두드려 만든 철제품으로 추정된다. 금강 최상류에서 가야문화를 화려하게 꽃피웠던 장수가야는 150여 개소의 제철유적을 남긴 철의 왕국이자 90여 개소의 봉수로 상징되는 봉수왕국이다. 한마디로 장수가야 문화유산은 첨단



장수 대적골 제련로 발굴 후 모습

과학이다.

우리나라에서 삼국시대 봉수가 장수군을 중심으로 전북 동부지역에서만 발견됐다. 전북 동부지역 그 존재를 드러낸 100여 개소의 봉수는 줄곧 백제와 등을 맞댄 장수가야가 생존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운영했던 가야문화유산의 백미이다. 전북 동부지역에 선상으로 배치된 100여 개소의 봉수망은 장수가야의 영역과 일치한다. 더욱이 장수군 제철유적을 사방에서 감시하듯이 배치되어, 장수가야 제철유적의 방비 역할도 담당했던 것 같다.

사실 삼국시대의 봉수와 관련된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고단한 지표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오늘도 전북 동부지역 봉수를 찾고 알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고고학자들의 도전과 열정에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우연히 산터미처럼 쌓인 쇳덩 더미를 보고 어릴 때 전해들은 봉수 이야기를 기억하고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에 제보를 해 준 주

민들께 깊은 감사를 표한다.

2016년부터 군산대학교 지표조사단에 의해 장수 대적골 제철유적이 발견됐다. 백두대간 장수덕유산 서쪽 대적골에서 다량의 슬래그가 수습됐는데, 그 분포 범위가 2.1km에 달한다. 여기서 대적골은 큰 보물단지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2017년부터 다섯 개 지구로 나누어 군산대학교 박물관에서 시굴 조사를, 전주문화유산연구원에서 세 차례의 발굴조사를 실시했는데, 지금까지 기대 이상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

다구역은 L자형 석축을 쌓아 작업공간이 마련되었는데, 유구는 제련로 4기, 단야시설 2기, 추정 용해로 1기, 석축시설 1기, 퇴적구 등이 조사됐다. 모두 4기의 유구가 중복된 제련로는 말각장방형 상형으로 배재부와 송풍구가 확인됐다. 그리고 단야시설과 추정 용해로는 점토와 석재를 이용하여 만들었지만 대부분 유실되어 바닥 부분만 남아있었다. 장수 대적골 제철유적의 핵심공간이다.



장수 토옥계곡 제철유적 내 철광석

라구역은 장수덕유산에서 서남쪽으로 뻗은 산줄기 남쪽 기슭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구는 비교적 넓게 조성된 평



장수대적골 제철유적 항공사진



장수 삼봉리 가야 공총 3호분 재갈 출토상태

탄대지에 서로 조성 시기를 달리하는 건물지와 석축이 확인됐다. 유물은 후백제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해당하는 토기편과 기와편, 자기편 등이 출토됐다. 마구역은 대적골 가장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조와 관련된 작업 시설과 용범요 2기 등이 조사됐다.

라구역에서 나온 후백제 유물은 기와편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기와편은 표면에 격자문과 수지문이 거칠게 시문되어 있는데, 유물의 속성이 전주 동고산성, 장수 침령·함미산성 출토품과 상통한다. 후백제 기와편이 대부분 붉게 산화되어 대규모 화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백두대간과 금남호남정맥, 금남정맥 자리한 산성들이 대부분 증축됐는데, 후백제가 외곽 방어체계의 구축과 제철유적의 방비에 목적을 둔 것으로 밝혀졌다.

삼국시대 때 진안고원을 차지하려고 백제와 가야, 신라가 서로 치열하게 각축전을 펼쳐 삼국의 유적과 유물이 공존한다. 그러다가 장수가야가 백제에 복속됐고, 백제와 후백제의 멸망 이후에는 전북 동부지역이 더 이상 주목을 받지 못했다. 장수 남양리에서 처음 시작된 대규모 철산개발이 갑작스런 후백제의 멸망과 함께 일시에 중단된

것이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조선 후기 몰래 광산을 경영하던 잠채로 제철유적이 일시 운영됐지만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가야 철기문화의 요람이자 봉수왕국 장수가야를 탄생시킨 대 장수군도 지금은 낙후된 지역을 암시하는 무진장(茂鎭長)으로 그 위상이 바뀌었다. 그렇다면 백두대간 서쪽 유일한 가야 왕국 장수가야의 발전상과 삼국의 각축장으로 진안고원이 융성할 수 있었던 것은 장수가야와 백제, 후백제의 대규모 철산 개발이다. 초기철기시대부터 후백제까지 장수군은 지붕 없는 철 박물관이었던 것이다. 향후 장수군 제철유적의 발굴조사와 문화재 지정, 유적의 정비복원을 통한 활용방안이 마련됐으면 한다.



장수 지지계곡 제철유적 항공사진

전북가야 보물, 말발굽 [鞭子]

장수 동촌리 19호분 출토, 가야 고총 유일 사례
장수가야 철의 제련기술, 가공기술 유물로 증명

한반도의 척추이자 자연생태계의 보고가 백두대간이다. 백두산 장군봉에서 시작하여 동쪽 해안선을 끼고 남쪽으로 흐르다가 태백산 근처에서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 지리산 천왕봉까지 뻗은 거대한 산줄기이다. 우리나라의 국토를 동서로 갈라놓는 큰 산줄기로 다시 이곳에서 뻗어나간 여러 갈래의

산줄기들은 지역권 및 문화권을 구분 짓는 경계선이 됐다.

백두대간이 가야의 서쪽 경계를 이룬 것으로 널리 회자됐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백두대간 서쪽에는 가야 왕국이 없다는 학설이 큰 지지를 받았다. 1993년 장수군 천천면 삼고리 삼장마을에서 가야토기가 발견되어, 금강 최상류에도 가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렸다. 장수군을 중심으로 진안고원에서 학계에 보고된 모든 가야의 유적과 유물을 하나로 묶어 장수가야라고 이름을 붙였다.

달리 호남의 지붕으로 유명한 진안고원을 무대로 장수가야가 가야 왕국으로까지 발전하는데 금남호남정맥의 고마움을 잊어선 안 된다. 백두대간 영취산에서 시작해 주화산까지 뻗은 산줄기로 북쪽의 금강과 남쪽의 섬진강 분수령을 이룬다. '산경표'에 실린 13개의 정맥 중 그 길이가 가장 짧지만 금남정맥, 호남정맥을 백두대간에 연결시켜 주는 가교 역할을 담



장수 남양리 출토 세문경



장수 남양리 출토 청동유물과 철기유물

당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백두대간 산줄기 못지않게 위풍당당해 백제의 동쪽 진출을 철통같이 막았다. 한마디로 금남호남정맥은 장수가야의 만리장성이다. 그리고 장수군에 지역적인 기반을 둔 토착세력집단이 4세기 말엽 가야문화를 받아들여 가야왕국으로까지 성장하는데 굳건한 밑거름이 됐다. 금남호남정맥에 금강의 발원지 신무산 뜯봉샘이 자리하여 금강의 최상류를 이룬다.

2010년 장수 동촌리 고분군에서 말발굽이 나왔다. 금남호남정맥에서 장수읍까지 서북쪽으로 뻗은 산줄기에 유적이 위치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마봉산(馬峰山)이 있다. 마봉산은 말 머리를 닮아 붙여진 이름으로 그 정상부에 봉수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말을 소재로 가장 풍부한 이야기를 남긴 나라가 가야다. 장수분지 중앙부에 우뚝 솟은 마봉산은 장수가야의 존재를 넉넉히 알려주었다.

마봉산에서 서북쪽으로 뻗은 산줄기와 다시 북쪽으로 갈라진 산자락 정상부에 90여 기의 가야 중대형 고총이 무리지어 있다. 다른 지역과 달리 북쪽으로 뻗은 산줄기에 그 입지를 두어 장수가야만의 강한 지역성, 독자성도 자랑한다. 본래 더 많은 고름장이 있었다는 주민들의 제보에 의하면 장수가야가 지배층의 사후를 위해 마봉산 자락에 국력을 담아 구축해 놓은

지하궁전이다.

2002년 겨울 군산대학교 지표조사단이 유적을 찾는데 마봉산이 큰 힘이 됐다. 2003년 장수군과 문화재청에서 발굴비를 지원해 주어 유적에 역사의 생명력을 불어넣은 뜻깊은 발굴조사도 추진됐다. 2015년 장수 동촌리 19호분에서 말발굽이 뒷발 한쪽만 나왔는데, 다른 한쪽과 앞발 말발굽은 지긋지긋한 도굴로 사라졌다. 가야 고총에서 말발굽이 나온 것은 장수 동촌리가 처음이다.



장수 동촌리 19호분 출토 말발굽



장수 남양리 4호 적석목관묘 발굴 후 모습



장수 대적골 제철유적 슬러그 더미



장수 삼고리 2호분 2-2호 석곽출토 환두도

말발굽은 말의 신발로 달리 편자(鞭子), 제철(蹄鐵)이라고도 한다. 앞발이 뒷발보다 폭이 넓어 그 모양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종래에 중국 요령성 성산산성 연못지, 서울 석촌동 적석총 1호분과 몽촌토성 2호 주거지, 상주 성동리 92호 석곽묘, 산청 평촌리 유적에서 나온 것이 더 있을 뿐이다. 아직까지 삼국시대 유적에서 출토된 것이 그다지 많지 않을 정도로 귀중하고 값진 것이다.

장수 동촌리 19호분에서 나온 말발굽은 당시 철의 생산부터 가공기술까지 응축된 첨단기술의 집약체로 커다란 주목을 받았다. 철의 장인이 수 없이 망치를 두드려서 탄생시킨 것이 말발굽이다. 말이 달리던 속도와 엄청난 압력을 거뜬히 이겨내고 주인이 세상을 떠나자 저승에서 주인을 모시기 위해 무덤 안에 부장품으로 초대를 받았다. 모든 것을 주인과 함께 했다.

모든 가야의 영역에서 철기문화가 처음 시작된 곳이 장수가

야다. 1989년 장수군 천천면 남양리 들판에서 청동유물과 철기유물이 반절씩 섞인 상태로 나왔는데, 그 시기가 기원전 1세기 말엽 경이다. 초기철기시대 처음 시작된 철의 생산이 장수가야까지 지속됐음이 유물로 뒷받침해 주었다. 말발굽은 장수가야가 철의 테크노밸리로 융성했음을 반증해 주는 유일무이한 증거이다.

우리나라에서 단일 지역 내 제철유적의 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이 장수가야다. 현재까지 170여 개소의 제철유적이 장수가야의 영역에서 학계에 보고됐는데, 한마디로 장수가야는 진정한 철의 왕국이다. 동시에 장수가야는 달리 봉수왕국으로도 널리 회자되고 있는데, 철과 봉수는 불과분의 관계이다. 장수 동촌리에서 나온 말발굽은 철의 생산과 유통으로 국력을 신장시킨 장수가야의 존재를 세상에 알린 전북가야의 보물이다.

운봉가야, 유적과 유물로 백제와 정락관계 방증 장수가야, 백제와 문물교류 관계 파악되지 않음

교통(交通)이란 사람·재물의 장소적 이동인 운송과 통신을 의미한다. 흔히 교통을 위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닦은 것이 교통로(交通路)이며, 그것을 인체에 비유한다면 크고 작은 가닥으로 뻗어나간 혈관과 같다. 인류의 출현과 함께 생겨난 교통로는 인류가 정착생활을 시작하면서 정착지를 중심으로 확장 내지 개척되는 과정에 가까운 거리에서 먼 거리로 확대되어 갔다.

그러다가 국가단계의 정치체가 형성된 이후에는 정치적인 중심지를 발판으로 전국에 방사선식으로 뻗어 나갔고, 간선과 지선, 지선과 지선들이 환상선식으로 연결되어 마치 거미줄 같은 교통망이 형성됐다. 우리나라에서 교통로의 발달과 교통망의 형성은 각 지역의 자연지형이나 강과 바다, 산줄기 등과 같은 자연조건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선사시대부터 고대까지 우리나라의 교통로가 어떠했는지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므로 그것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정치적인 중심지를 거점으로 하여



백두대간 육십령 표지석



백두대간 육십령과 봉화산성

교통로가 사방으로 뻗어 나갔을 것으로 여겨진다. 선사시대 이래로 교통로는 줄곧 정치적·군사적 의미뿐만 아니라 교역품의 수송을 위한 교역로로서 경제적 의미도 함께 담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삼국시대 때는 각국이 더욱 광범위하게 영역을 확장해 나감에 따라 수도를 중심으로 교통로를 재편성하게 됨으로써 그 이전 시기보다 훨씬 잘 정비된 교통로의 조직과 개설이 이뤄졌다. 옛길의 형성과 활용에 있어서 정치·경제적인 배경 못지않게 고갯길, 도강처 등의 자연지리적인 배경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사시대 이래로 교통로는 줄곧 정치적·군사적 의미뿐만 아니라 교역품의 수송을 위한 교역로로서 경제적인 의미도 담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삼국시대 때는 각국이 더욱 광범위하게 영역을 확장해 나감에 따라 수도를 중심으로 옛길을 재편성하게 됨으로써 그 이전 시기보다 잘 정비된 옛길의 개설과 조직망을 갖추었던 것으로 보인다. 삼국이 더욱 광범위하게 영역을 확장해 나감에 따라 수도를 중심으로 옛길을 재편성하는 과정에 그 이전 시기보다 훨씬 정비된 옛길의 조직과 개설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백제는 수도를 한성에서 웅진과 사비로 옮김에 따라 수도를 거점으로 간선교통로를 비롯하여 교통망이 재편성됐다. 당시 교통로의 재편성 과정은 교통의 중심지에 행정치소의

설치, 전략상 요충지에 축성, 관문의 개척, 교량부설, 철산개발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백제 간선교통로의 조직망과 그 재편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조명할 수 있는 곳이 전북 동부지역이다.

전북 동부지역은 지정학적인 이점을 살려 선사시대 이래로 줄곧 교통의 중심지를 이루었다. 백두대간 덕산재·월성치·육십령·치재, 금남정맥의 백령·축령·보룡재, 금남호남정맥 수분령·자고개·신광치 등은 백제와 가야 소국이 서로 교류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하는 주요 관문을 거느린다. 금



금강 발원지 신무산 튼봉샘 표시석



백두대간 월성치 근경



백두대간 치재 철쭉 군락

강·남강·섬진강의 본류와 지류, 백두대간·금남정맥·호남정맥·금남호남정맥의 주요 관문을 중심으로 내륙교통로가 그물망처럼 잘 갖춰져 있다.

우리나라의 남부지방 중심부에 전북 동부지역이 자리하고 있다. 백두대간이 동쪽, 금남정맥과 호남정맥이 서쪽, 백두대간과 금남정맥 사이를 잇는 험준한 산줄기가 북쪽의 자연경계를 이룬다. 선사시대 이래로 줄곧 지정학적인 이점을 살려 교통의 중심지이자 전략상 요충지를 이루었다. 삼국시대 때는 백제와 가야, 신라가 전북 동부지역의 철산지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각축전을 펼쳐 백제와 가야, 신라의 유적과 유물이 공존한다.

전북 동부지역은 선사시대부터 줄곧 교통망의 허브역할을 담당했다. 백두대간 동쪽의 황강과 남강유역, 금남정맥 서쪽의 만경강과 동진강유역, 금남호남정맥 남쪽의 섬진강과 보성강유역, 북쪽의 남한강유역에 기반을 둔 세력집단이 서로 교류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전북 동부지역을 경유했다. 바꾸어 말하면 전북 동부지역은 사통팔달했던 교역망의 허브였다. 당시 교역망은 철의 생산과 유통이 담긴 보물창고와 같은 것이다.

백두대간 큰 고갯길 육십령·치재는 철산개발과 무관하지



백두대간 치재 근경

않을 것이다. 당시 철이 사통팔달했던 교역망을 따라 널리 유통됨으로써 가야와 백제, 신라의 유물을 함께 모았다. 동시에 삼국이 철산지를 장악하려는 국가 차원의 전략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그리하여 삼국의 유적과 유물이 전북 동부지역에서 함께 존재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백제의 중앙과 가야를 연결해 주던 간선교통로가 전북 동부지역을 줄곧 통과하여 교역망의 허브역할을 담당했다.

전북가야, 토기박물관을 만들다

전북가야 다양성, 마한·백제·신라·고구려 토기 출토
삼국시대 교역 물물교환, 철의 생산과 유통 증거물

토기는 진흙으로 만들어 구운 그릇이다. 가야는 지역별로 독특한 모양과 특징을 담은 토기가 가야사 연구의 핵심을 이룬다. 가야토기는 금관가야와 대가야, 소가야, 아라가야, 창녕양식 등이 가장 대표적이다. 전북가야는 지역성을 강하게 담은 가야토기 양식이 불분명하지만 가야 양식의 토기가 공존한다. 한마디로 가야토기 박물관으로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담겨있을까?

전북 동부지역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가야토기가 나온 곳이 장수 노하리 고분군이다. 2016년 장수읍 서쪽 봉황산에서 노하리 왕대마을까지 동북쪽으로 길게 뻗어 내린 산자락 정상 부에서 4세기 후엽 늦은 시기 가야토기가 다량으로 나왔다. 수혈식 석곽묘에서 나온 토기류는 아라가야와 대가야 양식, 백제토기가 함께 나타났는데, 토기류의 조합상은 다양성으로 상징된다.

전북지역에서 마한계 최대 규모의 분묘유적으로 밝혀진 완주 상운리 출토품과 흡사한 토기류도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부터 장수가야가 가야 소국들과 백제, 마한과 활발한 교류가 시작됐음을 살필 수 있다. 아마도 장수 노하리 부근에 위치한



장수 노하리 출토 고배형 기대



임실 석두리 출토 고배



운봉고원 출토 기대



장수 삼고리 고분군 출토
가야토기



장수 삼고리 3호분 내 1호 출토 토기류



운봉고원 출토 기대



운봉고원 출토 유개장경호와 기대



임실 금성리 고분군 출토 유개장경호

장수 남양리에서 초기철기시대 때 처음 시작된 철의 생산과 유통이 장수가야에 이르러 더 왕성하게 이뤄졌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2018년 장수군 천천면 삼고리에서도 장수가야의 정체성이 다시 또 입증됐다. 장수가야의 하위계층 분묘유적으로 봉분 위쪽에 주구를 두르고 반지하식 혹은 지상식 매장공간으로 이루어진 5기의 봉토분이 조사됐다. 봉토분은 토광묘와 수혈식 석곽묘로 구성된 매장공간의 바닥면 높이가 대부분 달라 추가장에 의한 다곽식으로 밝혀졌다. 봉분의 가장자리에 호석을 두른 흔적이 확인되지 않아 장수가야 무덤의 지역성이 더욱 구체화됐다.

유물은 위신재로 알려진 금제이식과 오각형 철제대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양식의 토기류가 나왔다. 토기류는 가야·백제·신라토기와 영산강유역의 유공광구소호도 함께 나와 삼국시대 토기박물관을 방불케 했다. 여기에 다섯 가지 색깔의 구슬은 가야 영역에서 처음 출토됐다. 종전에 가야의 수장층 무덤에서 나왔던 유물이 하위계층 무덤에서 출토되어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1996년 진안 용담댐 수몰지구 내 진안 황산리 고분군도 전북 가야의 위상을 한껏 높였다. 백제토성으로 밝혀진 진안 와정



남원 월산리 M5호분 출토 토기류



장수 동촌리 9호분 출토 직구호



진안 황산리 고분군 출토 대부장경호

토성에서 서쪽으로 350m 가량 떨어진 진안군 용담면 월계리에 위치한다. 가야의 수혈식 석곽묘에서 나온 토기류의 조합상은 다양한 가야토기가 유물의 절대량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여기에 백제토기와 신라토기, 고구려토기도 섞여있었다.

1972년 임실을 금성리 화성마을 동남쪽 산에서 나무를 심는 사방공사를 실시하는 과정에 3기의 고분이 우연히 발견됐다. 당시에 유구가 심하게 훼손되어 고분의 구조를 상세히 파악하지 못했지만 수혈식 석곽묘로 추정됐다. 모두 5점의 토기류는 한 점의 가야토기를 제외하면 모두 백제토기였다. 섬진강유역의 강한 지역성으로 가야토기와 백제토기가 반절씩 섞여있었다.

2018년 백두대간 서쪽 무주군 일대로 신라의 진출이 유적과 유물로 밝혀졌다. 백제 웅진기 동안 사신들이 오갔던 옛길인 금강을 건넌 무주읍 용포리 부근에 무주 대차리 고분군이 위치한다. 유물은 6세기를 전후한 시기의 신라토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일부 가야토기가 섞여있었다. 금강을 중심으로 그 동쪽에 위치한 무주군 무주읍 일대로 신라의 서진(西進)을 신라토기로 방증했다.

백제와 가야, 신라를 연결해 주던 여러 갈래의 교역망이 그물조각처럼 잘 갖춰진 곳이 전북 동부지역이다. 가야의 석곽묘에서 나온 가야토기는 금관가야와 대가야 등 대부분 가야 양식 토기를 포함한다. 여기에 백제토기와 신라토기, 고구려토



장수 삼고리 3호분 내 1호 출토 토기류

기가 함께 부장된 곳은, 우리나라에서 진안고원이 유일하다. 진안고원의 철산지를 장악하려는 당시의 국가전략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전북 동부지역에서 백제계 토기는 4세기 말엽 경 처음 등장하기 시작한다. 동시에 가야토기도 4세기 말엽 늦은 시기부터 수혈식 석곽묘에 부장된다. 백제의 진출 이후 마한의 토착세력집단이 가야문화를 받아들여 전북가야가 가야 왕국으로까지 발전했다. 그렇게 본다면 전북가야는 150년 이상 대 규모 철산개발로 철의 왕국으로 융성하다가 백제에 복속된

것 같다.

전북은 염철론(鹽鐵論)의 큰 무대로 달리 동철서염(東鐵西鹽)으로 회자되고 있는데, 전북 동부지역에서 학계에 보고된 제철 유적이 250여 개소에 달한다. 우리나라에서 최대 규모의 철산지로 한마디로 다양성과 역동성으로 상징된다. 전북 동부지역에서 생산된 철을 확보하고 공급하기 위해 최상급 토기를 가지고 철산지 전북가야를 방문했던 것 같다. 한마디로 토기는 전북가야 철을 구입하기 위한 물물교환의 증거물이다.



장수 삼고리 고분군 출토 토기 모음



무주 대차리 고분군 출토 토기 모음

전북가야, 동북아 문물교류 허브

운봉가야 중국제 청자 계수호, 수대경 출토
장수가야 오색옥 및 곡옥, 문물교류의 허브

479년 가라왕 하지가 중국의 남제로부터 보국장군본국왕(輔國將軍本國王)에 책봉됐다. 565년 신라가 북제로부터 처음 책봉됐기 때문에 가라는 신라보다 86년이나 일찍 책봉을 받았다. 이때 가라왕을 대가야 왕으로 본 견해가 통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가야에서는 당시 중국제 유물이 출토되지 않고 있지만, 전북가야에서는 중국제 청자 계수호와 청동 거울이 나왔다.

백두대간 시리봉 동쪽 기슭 말단부에 남원 월산리·청계리 고분군이 위치하고 있는데, 본래 10여 기의 가야 고총이 웅기 종기 모여 있었다. 모두 두 차례의 발굴성과를 토대로 2018년 전라북도 기념물 제138호로 지정됐다. 2019년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주관으로 월산리 서쪽을 반달모양으로 휘감은 산자락 정상부에 자리한 가야 고총을 대상으로 3차 학술발굴도 진행 중이다.

2010년 계수호가 남원 월산리 M5호분에서 나왔다. 가야 고총이 밭 한 가운데 터를 잡았는데, 본래 봉분은 그 평면형태가



남원 월산리 M5호분 출토 중국제 청자 계수호

장타원형이었다. 봉분의 중앙에는 크고 작은 할석을 가지고 쌓은 매장공간이 마련됐는데, 매장공간은 그 길이가 960cm로



남원 월산리 5호분 중국제 청자 출토상태

가야 고총 중 월등히 크다. 본래 매장공간 천정을 덮었던 뚜껑 돌이 일부 없어서 도굴의 피해를 입었지만 부장유물이 풍부하게 나왔다.

매장공간은 남북으로 장축방향을 두었는데, 무덤 주인공의 시신을 모신 목관을 중앙에 배치하고 그 양쪽을 유물로 가득 채웠다. 계수호는 주인공의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북쪽에서 금제이식과 철제초두, 상당량의 토기류와 함께 나왔다. 그리고 서쪽에서는 마구류와 무기류, 농기구류, 토기류 등이 출토됐는데, 운봉고원에서 만들어진 복발형 투구는 일본에서 더 많이 나왔다.

모든 가야 영역에서 한 점만 나온 계수호는 중국에서도 최상급 위세품으로 평가받는다. 본래 차를 담는 용기로 몸통에 달린 닭 머리가 입을 다물어 무덤에 넣기 위한 명기로 짐작된다. 당시 중국과의 문물교류의 상징물로 전북가야의 국제성을 대변해 준다. 남원 월산리 M5호분은 봉분의 크기와 매장공간의 규모, 계수호와 철제초두 등 최상급 부장유물을 근거로 볼 때 운봉가야가 국력을 쏟아 만든 지하궁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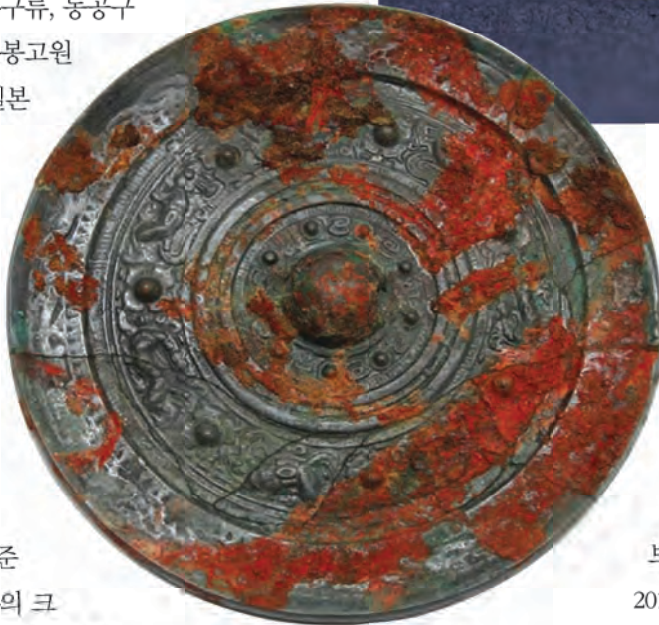
남원 월산리에서 동쪽으로 1.5km 떨어진 산자락에 남원 유곡리·두락리 고분군이 있다. 2013년 남원 유곡리·두락리 32호분 주석곽에서 한 점의 청동거울이 출토되어 운봉가야의 국제성을 다시 뽐냈다. 2018년 3월에는 호남지방에서 최초로 가야 관련 국가 사적 제542호로 지정됐고, 당시의 여세를 몰아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목록에도 그 이름을 당당히 올렸다.

주석곽 무덤 주인공의 머리쪽에서 나온 청동거울은 직물로 싼 뒤 등 부분이 위로 향하도록 나무 상자에 넣어 부장됐다. 등 부분 중앙에 배치된 원형 손잡이를 중심으로 의자손(宜子孫) 명문과 서수문(瑞獸文)이 표현되어 있는데, 의자손은 자손이 번성하기를 기원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7개의 작은 손잡이 사이에 동물 문양을 새겨 의자손 수대경(獸帶鏡)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에서 의자손수대경은 무령왕릉 출토품이 유일하다. 중국에서 만들어진 청동거울로 일본에서는 오키노시마(沖ノ島)와 사사하라(笹原), 에다후나야마(江田船山) 고분에서 더



장수 삼고리 고분군 출토 오색옥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32호분 출토 청동거울

나왔는데, 유물의 의미와 속성이 서로 비슷하다. 남원 유곡리·두락리 고분군 내 가야 고총에서 의자손수대경이 출토됨으로써 당시 운봉고원의 기문국이 동북아 문물교류의 허브였음이 유물로 입증됐다.

2018년 장수군 천천면 삼고리 고분군에서 오색옥(五色玉)이 출토되어 학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백두대간 서쪽에 가야 왕국이 존재

한다는 고고학적 단초를 처음 제공했던 곳이 장수 삼고리이다. 무덤은 망자의 새로운 쉼터이자 보금자리이다. 장수군에 지역적인 기반을 두고 가야 왕국으로까지 발전했던 장수가야 백성들이 잠든 사후세계의 안식처에서 오색옥이 나왔다.

장수 삼고리는 국내외 문물교류의 집합체이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마한과 백제, 가야, 신라토기가 한 분묘유적에서 함께 출토되어 당시 문물교환의 역동성을 유물로 보여줬다. 장수 삼고리 3호분에서 나온 오색옥은 인도네시아 레독움보에서 제작된 것으로 나주 정촌에서 나온 삼색옥이 더 있을 뿐이다. 장수가야가 철의 생산과 유통으로 당시 융성했음을 명약 관화하게 증명했다.

전북가야는 동북아 문물교류의 허브였다. 운봉고원의 지배자부터 장수가야의 백성에 이르기까지 역동적인 문물교류의 국제성을 일목요연하게 담아냈다. 중국제 청자 계수호와 의자손 수대경, 동남아에서 바닷길로 전해진 오색옥도 전북가야의 분묘유적에서만 나왔다. 중국을 출발해 우리나라를 거쳐 일본까지 이어진 동북아 교역로의 교량역할을 전북가야가 내내 담당했던 것 같다.

전북가야, 백제에 복속되다

운봉가야, 유적과 유물로 백제와 정략관계 방증
장수가야, 백제와 문물교류 관계 파악되지 않음

전북가야가 언제 백제에 정치적으로 복속됐는지 알 수 없다. 다만 전북가야를 이끈 운봉가야, 장수가야가 백제와의 문물교류에서 서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운봉가야는 가야 고총에서 백제의 황혈식 석실분이 수용됐고, 백제왕이 보낸 최고 의 위세품도 적지 않게 출토됐다. 그러나 장수가야의 경우

는 가야 소국 중 유일하게 백제와의 교류관계가 유적과 유물로 증명되지 않고 있다.

1989년 남원 유곡리·두락리 고분군 내 가야 고총에서 백제 묘제가 확인됐다. 남원 유곡리·두락리 36호분은 운봉고원 내 아영분지 한복판까지 뻗은 산줄기 남쪽 기슭 하단부에 위치한



남원 두락리 36호분 널방과 널길



남원 임리 고분군 내 횡구식 석곽묘 입구



남원 임리 고분군 발굴 후 모습

다. 봉분은 남북으로 약간 긴 장타원형으로 남북 길이 21m이며, 봉분의 가장자리에서 호석시설이 확인되지 않았다. 마한의 분구묘에서 비롯된 운봉가야의 묘제가 이윽고 백제로 바뀐 것이다.

봉분의 중앙에는 남북길이 300cm, 동서폭 240cm, 높이 280cm 크기의 장방형 석실이 마련됐다. 봉분의 중앙부에 축조된 석실은 아래쪽이 수직에 가깝고 그 위로 올라가면서 네 벽석을 같은 비율로 좁혀 1매의 개석으로 덮었다. 석실의 바닥에는 판상석을 이용하여 관대시설을 마련하고 벽면과 천정, 관대시설에는 회를 두텁게 발랐다. 가야 영역에서 학계에 보고된 백제계 횡혈식 석실분 중 그 규모가 가장 크다.

연도는 석실의 서벽을 그대로 연장시켜 연도의 서벽을 이루어 서쪽에 편재됐고, 석실에서 시작된 배수시설이 연도를 통과한다. 연도와 석실의 경계에 1매의 문비석이 약간 옮겨진 상태로 비스듬히 놓여있었다. 연도의 길이가 382cm로 상당히 긴 것은 수혈식에서 횡혈식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단계의 양상이다. 연도의 위치와 길이를 제외하면 유구의 속성은 대체로 공주 송산리 3호분과 상통한다.

급기야 가야 고총의 내부 구조가 백제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되면서 6세기 전반기 이른 시기 수혈식에서 횡구식 및 횡혈식으로 바뀐다. 공주 송산리 3호분은 6세기 초엽 이른 시기로 편년되고 있기 때문에 백제계 횡혈식 석실분이 운봉고원의 기문국을 거쳐 가야 영역에 전파됐을 것으로 추측된다. 운봉가야는 줄곧 백제의 선진문물이 가야로 전파되는데 줄곧 관

문 역할을 담당했다.

남원 유곡리·두락리 고분군 내 가야 고총의 내부구조가 백제 묘제로 바뀐 것은 운봉고원의 기문국이 백제에 정치적으로 복속됐음을 말해준다. 남원 두락리 36호분에서 2~3인분의 인골이 수습됐는데, 554년 옥천 관산성 전투 이후 신라 영역에 편입된 운봉고원에서 6세기 중엽 경까지 장례 행위가 지속됐기 때문이다. 여기서 가야 고총의 구조는 묘제를, 신라의 단각고매는 장제를 의미한다.

남원 임리에서도 백제 묘제가 확인됐다. 백두대간 고남산에서 동남쪽으로 뻗은 산줄기 정상부에 봉분의 직경이 15m 내외되는 40여 기의 가야 중대형 고총이 밀집 분포되어 있다. 남원 임리 1호분은 봉토의 중앙에 주석곽이 배치됐고, 그 동북쪽에 2기의 순장곽이 에워싼 다곽식이다. 주석곽은 산줄기와 평행되게 남북으로 장축방향을 두었으며, 무덤의 구조는 출입구가 남쪽에 마련된 횡구식이다.

주석곽의 내부구조가 수혈식에서 횡구식으로 바뀌었고, 유구의 장축방향에서도 백제묘제의 관련성이 확인됐다. 백두대간 산줄기 동쪽, 즉 가야의 영역에서 백제묘제가 가장 일찍 수용된 곳이 운봉고원이다. 그만큼 운봉고원의 기문국은 백제의 선진문물이 가야 영역으로 전파되는데 큰 대문의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운봉가야와 백제의 정략적 관계를 대변해 준다.

그러나 장수가야는 가야의 분묘유적에서 백제의 묘제가 확인되지 않았다. 그리고 가야토기가 처음 출현하는 4세기 말엽

부터 6세기 초엽까지 백제토기도 거의 출토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6세기 초엽을 전후한 시기부터 삼족토기 등 백제토기가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가야의 수장층 분묘유적에서 백제 묘제가 확인되지 않은 것은 장수가야가 유일하며, 당시 양국이 서로 적대적인 관계였음을 엿볼 수 있다.

‘일본서기’ 제제기에 백제는 513년부터 3년 동안 기문, 대사를 두고 가야 왕국 반파(伴波)와 갈등관계에 빠진다. 백제 무령왕은 가야 왕국 반파와의 3년 전쟁에서 승리한 뒤 운봉고원의 기문국을 복속시켰다. 운봉고원 일대가 6세기 전반 이른 시기 무령왕 때 백제에 정치적으로 편입됨으로써 철의 왕국 기문국이 521년 이후부터는 더 이상 문헌에 등장하지 않는다.

동시에 ‘삼국유사’ 6가야조에 전북가야가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금관가야와 대가야, 소가야 등 6가야는 562년 신라에 멸망할 무렵 영남지방에 존속했던 가야 왕국들이다. 운봉고원의 기문국과 진안고원의 반파국은 이미 백제에 복속됐기 때문에 ‘삼국유사’에 초대를 받지 못했다. 백제는 반파와의 3년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기문국을 복속시킨 뒤 곧이어 봉수왕국 반파까지 멸망시켰다.

철의 왕국 기문국과 봉수왕국 반파국을 복속시킨 백제는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굳건한 토대를 마련했고, 성왕 때는 한강 유역의 수복과 함께 사비로 천도할 수 있는 경제적인 토대도 구축됐다. 동시에 고고학에서 보수성과 전통성을 가장 잘 대변해 주는 기문국의 가야 고총 내부구조도 수혈식에서 횡혈식으로 바뀌었고, 장수가야에서는 백제토기가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마침내 전북가야가 백제에 정치적으로 복속됐음을 말해준다.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36호분 연도부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36호분 내부모습



장수 삼고리 7호분 출토 삼족토기



남원 봉대리 고분군 석각묘 출토 토기류

加耶

가야문화연구원

인쇄일 2019년 8월 20일

발행일 2019년 8월 25일

발행처 | 전라북도

기획 |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주소 | 전북 군산시 대학로 558

집필 | 박장근

전화 | (063) 469-8962~3

제작·인쇄 | 신아출판사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공북1길 16

대표전화 | Tel. (063) 275-4000, fax, (063) 274-3131

등록 | 1984년 8월 17일 제28호

E-mail | sina321@hanmail.net

ISBN 979-11-5605-717-8 93900

비매품

전북 동부지역에서 학계에 보고된
모든 가야계 유적과 유물을 하나로 합쳐
전북가야라고 이름을 지었다.

가야의 지배층 무덤으로 알려진
말무덤 및 가야 고총 400여 기와
횃불과 연기로 신호를 주고받던
100여 개소의 봉수로 상징된다.

전북가야의 용어에는 가야사 국정과제에
국민들을 초대하기 위한 대중적이고
홍보적인 의미만을 담고 있다.

Jeonbuk Gaya

비대품

